

사랑의 세계정치를 향하여

사랑방의  
젊은 그들로  
베이징을 품다

하영선 편

11



**EAI**  
EAST ASIA INSTITUTE



## EAI 사랑방이란



미래 한국의 국제정치학자와 외교관을 육성하고자  
2013년에 시작한 EAI 교육 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 목차

## 1. 쫀이 다시 보기: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자의식 형성 .....	3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	조이언

## 2. 21세기 '평화의 구조'를 모색하며:

키신저-저우 42시간 대화록 읽기 .....	33
자금성 .....	황여준

## 3. 中·蘇의 後進國 National Bourgeoisie에 대한 立場 ... 59

河英善

# 쭈이 다시 보기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자의식 형성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조이언

연세대학교

## 들어가며

1912년에서 1949년에 이르는 시기의 중국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으며, 이 시기의 역사가 완벽한 체계 속에서 설명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독립되지 않고 통일되지 않은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광활한 정치적 무대였고, 서로 다른 연극의 주인공들이 각자의 연기를 펼치며 복합적인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성장을 분석함으로써 이 난해한 역사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1921년에 창당한 중국공산당의 ‘미약한 시작’이 어떻게 1949년의 대승리로 연결될 수 있었는지, 특히 소련과 코민테른이라는 정치적 후견인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하여 유력하고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쑨이회회의 전말과 그 국제정치적 배경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1930년대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당시 소련의 상황과 코민테른-중국공산당 관계와 관련하여 해설하고, 그 다음 1945년 역사결의, 1935년 쑨이문헌, 오토 브라운의 회고를 통해 쑨이회회의의 전말과 그 정치적 함의를 밝히도록 하겠다.

## 1930년대의 국제정치적 상황: (1) 소련의 상황

러시아 혁명 이후의 소련은 세계혁명 무대의 혁명 모국으로서의 정체성과, 국제정치 무대의 새로운 열강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첩되어 있었다. 두 정체성은 각각 상이한 정치논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었으므로, 소련은 한편으로 각국의 혁명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국(一國)의 정치적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었다. 소련이 처한 이러한 상황은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와 일국의 정치적 생존 간의 정치적인 모순과 그에 따른 노선갈등의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었으므로 트로츠키가 국제주의적 성격의 연속혁명론을 주장함으로써 레닌,

스탈린과 갈등을 빚은 것은 필연적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레닌의 일국 혁명 이론,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이론은 세계혁명과 러시아의 생존이 양립 가능함을 논쟁하며 그러한 모순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1920년대 말 트로츠키의 숙청 이후 공산권내에서 트로츠키주의, 트로츠키분자 등의 표현은 혁명가들이 소련의 권위에 호소하며 서로를 힐난할 때 남용되는 수사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모종의 이유로 공격당하는 혁명노선이 현실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비판과 동시에 러시아의 정치적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이 함께 함의되어 있었다.)

대의와 현실 간의 관계가 오래 그렇듯이 소련의 국제주의적 목적의식과 일국적 국가이성 간 균형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스탈린은 소련을 경제적, 군사적 열강으로 탈바꿈시키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서는 여타 열강들과의 ‘평화적 공존’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스탈린은 소련 외무부를 통해 현실주의적인 외교를 펼침으로써 영국 등 기존의 협상국 국가들과, 특히 미국으로부터 국가 승인을 받아냈으며 각종 외교적, 경제적 협력을 유도하였다. 한편, 소련의 세계혁명에 대한 의무는 각국의 공산당들을 지도하는 국제조직인 코민테른에 위탁되어 있었다. 코민테른은 명목상 각국의 공산당들의 협력과 연대를 매개하는 기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련의 실력에 종속되어 있었으므로 세계혁명과 관련된 소련의

외교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였다. 스탈린 노선을 채택한 1928년 코민테른 제 6차 대회 이후 이러한 경향성은 노골화되어 코민테른 내 의사결정은 스탈린의 직접적인 지도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대표적으로 같은 해 제 6차 대회에 앞서 개최된 코민테른 제 9차 전체회의에서는 로미나제가 ‘중국에서는 부르주아혁명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즉시 사회주의혁명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대표부를 이러한 주장이 트로츠키주의적 오류라고 비판하였다. (尙靑, 1992, pp. 151-154)

1930년대 초 소련 외교의 현실주의적 경향성이 강화된 데는 독일과 일본의 정치적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1931년에는 일본 관동군이 국내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만주사변을 일으킴으로써 중국의 동북부를 공격하여 소련 입장에서는 극동의 안보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졌고 1933년에는 독일에서 나치즘이 부상하여 소련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를 기점으로 소련의 안보 불안은 세계혁명에 대한 의무감을 압도하게 되었고 스탈린은 자본주의 세력과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는 한편 일본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1930년대의 반파시스트 통일전선은 이념적인 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현실주의적 태도로부터 정립된 것이었다.) 사실상

소련에 정치적으로 예측된 코민테른 역시 이러한 일련의 국제정치적 고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Shen, 2020, p. 55)

## 1930년대의 국제정치적 상황: (2) 중국공산당-코민테른 관계

1921년에 소련의 지원, 감독 하에 창당된 중국공산당은 1930년대 전반까지 소련 및 코민테른에 대하여 모든 방면에서 절대적인 의존 상태에 있었다. 중국공산당이 1937년부터 8년간 지속한 중일전쟁을 통해 세력을 크게 확장하고 끝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건국에 성공하기 전까지 중국공산당과 소련-코민테른 간 관계는 국가 간 관계 내지는 파트너적 관계보다는 장군과 병졸의 관계에 가까운 것이었다. 소련의 입장에서 중국공산당은 소련의 생존 전략에 이리저리 운용될 수 전술 자산과도 같았던 반면에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 소련이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이었다. 따라서 소련은 때에 따라 오페이푸(吳佩孚)와 같은 군벌, 쑨원 등 ‘민족 부르주아’들과 협력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산당에 대하여 국공합작을 지시, 종용할 수 있었으며 중국공산당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코민테른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예측은 명시적이기도 하였는데 중국공산당

창당 이후 채택된 〈중국공산당의 첫 번째 강령〉은 ‘코민테른과 연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중국공산당의 첫 번째 결의〉는 ‘당과 코민테른의 연계’를 규정하고 있다. (尙靑, 1992, p. 38)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에 대하여 쑨이 이전의 중국공산당 구성원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작업은 이 글에서 미처 다 다루기 어렵다. 다만 1927년 여름부터 1930년까지 모스크바 중산대학 유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종의 청당작업은 쑨이 이전에 중국공산당의 자립도에 대한 성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이미 존재하였음을 예시한다. 코민테른과 미프를 추종하는 ‘왕명 종파집단’과 ‘반왕명집단’간의 투쟁이 발생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반왕명집단’의 주동자들이 당적을 박탈당하고 일부는 체포당하는 등 소련 측에 의한 박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왕명집단은 코민테른 제 6차 대회에서 채택된 제 3시기 이론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였는데 나치의 1933년 부상 이후 반파시스트 통일전선 이론으로 대체된 제 3시기 이론은 일종의 혁명 낙관론으로 1928년의 국제정세에 대해 전세계적 자본주의 경제 실패와 혁명적 조건의 고조의 시기라고 평가하였다. (그런 점에서 1928년부터 1933년 사이의 기간은 소련의 입장에서 생존과 혁명의 이중 연기가 마지막으로 두드러지는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코민테른과 중국공산당에서는 ‘소련을 수호’하자는 각오나 ‘극동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를 쟁취’하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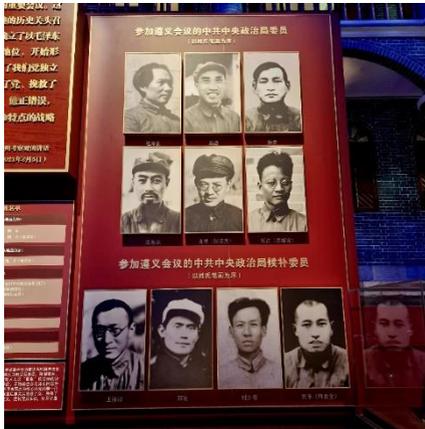
구호 등이 복잡하게 섞여서 운위되었다.) 각국의 혁명이 제 3시기의 세계 혁명과 보초를 맞추어 진행될 것을 다소간 기계적으로 요구하였던 제 3시기 이론은 중국 문제에 대한 코민테른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는 중국에서 ‘혁명의 고조가 임박’하였으므로 중국공산당이 “도시노동자의 폭동과 농촌 홍군의 공격을 서로 결합하여 한개 성이나 수개 성에서 승리를 획득하자”는 이른바 “리리싼 좌경노선”으로 귀결되었다. 즉, 제 3시기 이론이라는 ‘코민테른 좌경노선’이 (이내 왕명 좌경 노선에 의해 대체될) 리리싼 좌경 노선을 발생시킨 것이다. (尙靑, 1992, pp. 174-175)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중국공산당이 제 1, 2차 국공합작에 있어서는 상당한 내부 동의가 있었던 데 반해 중국 본토에서 무장폭동을 수행하는 계획, 특히, 도시노동자들의 폭동을 조직하는 일에 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왕명은 본래 리리싼 노선의 지지자였다. 그러나 1930년 이후 드러난 양자 간 입장의 차이란 결국 상대적인 것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3시기 이론의 무오류성을 주장하는 등 왕명의 노선이 더 공격적이였다.) 1930년 국공내전의 상황이 악화된 시기를 틈타 왕명은 미프의 지지를 받으며 소비에트구와 홍군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초공 시기에 왕명은 모스크바에 거주하며 홍군에 코민테른의 군사전략 지휘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 쑨이회의의 재구성

왕명이 통제권을 확보하고 중화소비에트가 건립된 이후 중국공산당은 다섯 차례에 걸친 초공작전에 대해 고된 투쟁을 해야 하는 수난기에 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은 우여곡절 끝에 1933년 끝내 제4차 초공작전을 살아남는 데 성공한다. (왕명은 이때까지도 대도시들을 점령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1933년 9월 중국 소비에트 주재 군사고문 오토 브라운(李德)이 중국소비에트에 도착했고 이후 중국 본토에서 코민테른의 군사전략에 입각하여 왕명의 후배이자 후계자였던 보구(이들 일파를 ‘28인 불세비키’ 그룹이라고 관습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와 함께 홍군을 지휘했다. 왕명과 오토 브라운 등은 제 4차 초공 작전 이후 1933년, 1934년의 중국혁명 형세가 좋다고 주장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5차 초공 작전이 전개된 이후에는 일련의 군사적 실패를 겪었다. 결국 1934년 10월 (일찍이 마오가 농민운동을 통해 건설하였던) 장시 소비에트에 피난해 있던 홍군은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고전을 거듭하던 중 1935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에 걸쳐 쑨이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장에서는 마오의 주도하에 채택된 1945년의 역사결의와 마오가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1935년 쑨이회의 결의, 오토 브라운의 회고를

통해 쑨이회의를 재구성하고 그 정치적,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자 한다.



### ▲ 쑨이의 정치지도자들

(베이징 국가박물관)



### ▲ 쑨이회의 명단 (베이징 국가박물관)

## 쭈이회의의 재구성:

### (1) 마오의 쭈이-1945년과 1935년

중국공산당은 1945년에 개최된 공산당 6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6기 7중전회)에서 ‘역사결의’를 채택했다. (이후 중국공산당사에는 두 차례의 역사결의가 더 있었다. 1981년에는 덩샤오핑이 2차 역사결의를 주도했고 2021년에는 시진핑이 3차 역사결의를 통과시켰다.) 일찍이 마오쩌둥은 1941년부터 1942년까지 최고위급 지도자들로부터 ‘왕밍 좌경노선’이 오류였다는 합의를 이끌어냈고 1942년부터 1943년까지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인식을 학습시켰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는 고위 당정간부를 중심으로 ‘왕밍 좌경노선’ 등의 노선들을 비판하는 역사 토론이 전개되었고 그 결론으로 1945년 역사결의가 채택되었다. 4년에 걸쳐 전개된 연안 정풍운동은 산만하고 파란중첩하였던 초기혁명사로부터 마오쩌둥사상이라는 핵심적인 줄기를 분리해내는 역사 작업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인 1945년 역사결의는 중공 초기혁명사에 대한 제일 공식적이고 영향력 있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증류 과정에서 실제로는 훨씬 모호하였던 역사적 경향성들이 몇 개의 서사 요소들을 중심으로 응축되어야 했다. 1945년 역사결의의 스토리텔링은 마오쩌둥사상의 자장 속에서 포착될 수 있는 요소들을 프로타고니스트로 설정하고

좌우의 ‘잘못된’ 노선들을 안타고니스트로 설정하여 전개된다. 한편 역사결의가 ‘좌익노선’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실제의 역사에서는 단일한 사건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한 역사결의의 설명은 왕밍, 리리싼, 보구 등의 ‘좌익 모험주의자’들이 1927년, 1930년, 1934년 세 차례에 걸쳐서 집권했다는 것인데 세 시기는 서로 다른 역사적 경향성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좌익 노선’이 심화되는 선형적인 과정처럼 묘사된다.

1945년의 역사결의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이고 2, 3장이 역사 서술이며, 나머지 장들은 역사에 대한 평가에 해당한다. 2장은 1921-27년 기간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고 3장은 1927년 이후의 역사, 즉 1927년의 천두슈 우익 노선의 종식과 좌익 노선의 부상, 앞서 언급한 세 차례에 걸친 좌익 노선의 성장, 그리고 1935년 쑨이회의의 좌익 노선 종식의 혁명사를 서술하고 있다. 4장에서는 좌익노선의 오류를 정치, 군사, 조직, 사상의 네 측면에서 비판하고 있고 5장은 이런 오류의 원인으로 ‘공산당 밖의 계급투쟁이 당내에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한다. 6장에서는 교육과 사상개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7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사결의의 결론을 서술하고 있다. “마오쩌둥 동지의 말이 완전히 옳았다. 오늘 우리 당이 항일전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결정적 역할은 바로 이 올바른 노선의 생생한 증거이다.” “마오쩌둥 동지를 대표로 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이 “중국혁명 승리의 역량”이었으며,

“마오쩌둥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중앙위원회는 반드시 중국 혁명을 완전한 승리를 이끌 것이다”.



**▲쑨이의 역사적 중요성에 관한 시진핑의 발언 (베이징 국가박물관)**

역사결의의 서론은 중국공산당의 역사가 제 1차 대혁명(1921-1927)과 그 실패, 잇따른 토지혁명(1927-1937), 항일전쟁(1937-1945)의 세 시기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혁명이라는 다소 모호한 명칭의 역사 시기는 제 1차 국공합작(“제 1차 대혁명”)과 제 2차 국공합작 사이의 기간을 가리키는데, 1945년 역사결의는 바로 이 시기에 대한 권위적인 해석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1945년 중국공산당의 관점에서 그 10년간의 행적들을 정리하고 해명하는

작업이 왜 중요하였는가? 중국공산당은 토지혁명 10년의 시기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1927년 혁명이 실패하고 1937년 항일전쟁이 발발하기까지의 10년 동안 중국공산당은, 오직 중국공산당만이, 반혁명적이고 흉악한 공포 통치 아래 전체가 단결하여 반反제국주의와 반反봉건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노동자, 농민, 군인, 혁명적 지식인 및 기타 혁명적 대중을 이끌어 정치·군사·사상의 영역에서 위대한 전투를 치렀다. (...) 이 모든 것이 없었더라면 항일전쟁도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며, 설사 실현됐더라도 인민전쟁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중국공산당의 중추가 없었더라면 항일 전쟁을 지속하고 승리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27년부터 1937년에 이르는 10년은 중국공산당에 있어 1927년의 실패로부터 딛고 일어나는 정치적, 군사적, 사상적 발전의 시기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결의의 주제의식은 잇따르는 구절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점은, 그 10년 동안 우리 당은 위대한 성취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몇몇 시기에는 잘못도 범했다는 것이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1931년 1월 제6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6기 4중전회)에서 1935년 1월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쑨이회의)에 이르는 시기에 범한 정치노선, 군사노선, 조직노선에 있어서의 '좌경' 오류였다. (...) 중국 혁명의 역사적 교훈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실패를 별해 이후에 삼가며 병을 치료해 사람을 구하는 한편, 앞의 차가 뒤집히면 뒤의 차로 하여금 그것을 교훈 삼도록 해야 한다. (...) 중국공산당 제 6기 중앙위원회 확대 제 7차 전체회의는 이 10년 간의 몇 가지 당의 역사적 문제와, 그 중에서도 특히 6기 4중전회에서 쑨이회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있었던 중앙의 영도 노선 문제에 관해 공식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유용하고 또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하는 표현은 정치, 군사, 조직의 삼분법이다. 리리싼, 왕명, 보구의 좌경노선이 정치, 군사, 조직의 세 개 차원에서 모두 오류를 범했다거나 쑨이회의에서 마오가 세 개 차원의 오류를 시정하였다는 표현은 역사결의의 본문에서 수십 번 반복 등장하고 있다. (사상이라는 범주도 등장하는데, 주로 맑스-레닌주의의 도입과 발전에 관련되며, 역사결의에서는 논쟁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각각이 역사의 어떤 부분들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맥락상 ‘정치’는 혁명 이론상의 문제, 즉 부르주아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관계나 지방 농민봉기와 도시 무장파업의 관계 등 중국혁명을 수행함에 있어

중국공산당이 내려야 했을 정치적 결단들에 관련된다는 것을, ‘군사’는 홍군의 전략전술 문제, ‘조직’은 당내 갈등과 협동에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중전회 이래의 좌경노선에 대한 역사결의적 비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좌경노선은 군사적으로 잘못된 전략을 취하여 제 5차 초공 작전으로 인한 위태로움을 초래했으며, 조직적으로는 종파주의를 야기하여 당내 갈등을 일으켰다. 정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중국 혁명 성격을 이른바 (민주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혼동한) “부단혁명(영구혁명)”으로, 중국 혁명의 형세를 이른바 (1927년 혁명의 실패를 부인하는) “끊이지 않는 고조高調”로 이해했다. 따라서 그들은 여전히 질서 있는 후퇴를 조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의 강력함과 혁명 실패 이후 민중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의 당원과 소수의 민중에게 승리할 가망이 전혀 없는 지방 봉기를 전국적으로 조직할 것을 명령했다.

역사결의의 결론은 마오가 쑨이회의를 기점으로 이러한 잘못들을 완전히 바로잡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쑨이회의 이후 마오쩌둥 동지가 영도하는 당중앙이 채택한 정치노선은 완전히 옳았다. 좌익노선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조직적으로 점차 극복되었다. 1942년 이래로 마오쩌둥 동지가 지도하는 전당의 정풍운동과 당사연구는 주관주의, 종파주의, 고정관념적인 역사서술을

반대하고 당역사의 이념적 뿌리에서 비롯된 좌우의 편향을 바로잡아왔다.” 그리고 이런 해석은 1985년 쑨이회의 문헌 공개 이전까지 쑨이회의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진술이었고, 50년 동안 비판적인 서구 학자들마저도 마오의 부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쑨이의 신화’를 그대로 인용하는 상황을 연출해냈다.

하지만 1985년에 공개된 1935년 문헌들은 마오의 정치적 탄생설화 속 ‘플롯화’된 쑨이와는 사뭇 다른 톤의 쑨이를 보여주고 있다. 쑨이회의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건은 다음의 세 개가 현전하고 있는데, 1985년에 중국공산당이 편찬한 ‘쑨이회의의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이 세 편의 문서들은 Chen과 Yang에 의해 번역, 해설된 바 있다.<sup>1</sup>

---

<sup>1</sup> 쑨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세 편의 에피소드가 여전히 두드러진다. 1969년에 Jerome Chen 이 *The China Quarterly* 를 통해 ‘쑨이회의결의’를 번역, 해설하였고, 1986년에는 Benjamin Yang 이 ‘쑨이회의결의 개요’, ‘쑨이회의 메모’를 번역, 해설하였다. 1989년에는 Thomas Kampen 이 Yang 의 1986년 해설을 비판하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화두는 ‘마오의 부상’이었다. Yang 이 문헌 검토를 통해 공식 공산당사가 극화한 쑨이의 서사를 해체하면서도 쑨이가 마오의 정치적 부상에 있어 결정적인 사건임을 인정하고 있다면, Kampen 은 양대노선이라는 노선투쟁 서사의 전제 자체에 상당히 왜곡되었음을 강조하며 쑨이가 마오의 정치적 부상에 있어 그저 한 단계에 불과했다고 역설한다.

영미권에서 진행된 이러한 일련의 연구와 논의들은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쑨이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길 꺼리는 상황 속에서 쑨이를 고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태도가 비판적인 것이므로

1. Resolutions of the Centre of the CCP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olitburo, Tsunyi, 8 January 1935 [총결의]
2. The Outline Resolution of the Enlarged Politburo Conference on Summing up Experiences and Lessons in Smashing the Fifth “Encirclement” Campaign (The Secretariat of the Central Committee, 8 February 1935) [결의요강]
3. Notes for Communicating the Enlarged Politburo Conference at Zunyi (By Chen Yun, February–March 1935) [전보]

세 개 문헌들의 내용이 대동소이한 가운데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중에서 결의요강은 쑨이회의를 즈음하여 (쑨이에서의 입장 발표를 위하여) 마오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결의요강과 역사결의를 비교하여 1935년의 마오와 1945년의 마오가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결의요강’은 11개 요점들로 구성돼 있고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5차 초공작전에 관한 당의 전반적인 정치적 노선은 옳았다. 잘못된 것은 군사 노선이였다. (2) 국민당의 장기전에 대하여 ‘적극적 방어’ ‘공격적 방어’ 노선으로 대응했어야

---

연구대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보다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는지 밝히는 데 차중해있다.

한다. (3) (4) (5) 홍군의 순수(소극적) 방어 노선은 국민혁명군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6) (7) 국민혁명군의 장기전을 구사한다면 홍군은 기동전 노선을 통해서만이 군사적 성과를 이룰 수 있다. (8) 반동세력 내 갈등을 홍군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핵심적인 실패 요인은 소비에트 철수 이후 벌어진 혼란과 패닉을 수습하지 못한 것과 철수 이후에도 노선 변경을 하지 못한 것이다. (10) 순수방어노선은 우익 기회주의 노선의 잔재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보다도 보구에 지워져야 한다. (11) 철수한 소비에트 지역들에서는 게릴라전이 지속되어야 하며 새로운 소비에트 건설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1935년 쑨이에서의 논의는 그 내용과 언어가 1945년 역사결의의 그것과는 달랐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1945년의 역사결의가 쑨이 이전에 당권을 잡고 있던 좌익노선의 결정들이 정치, 군사, 조직, 사상의 모든 측면에서 잘못되었다고 비판한 데 반해, 1935년의 결의요강에서는 제5차 초공작전 당시 당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 5차 초공작전 당시 당의 전반적인 정치노선은 옳았고 위초를 돌파하는 데 실패를 본질적으로 초래한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요인들이었다. 달리 말해, 군사 지휘에 있어 중국 내전의 기본 전략과 전술 법칙에 어긋나는 순수 방어 전선의 오류를 저질렀기 때문인 것이다.

(The general political line of the Party in the Fifth “Encirclement” was correct, and what essentially caused the failure in breaking the encirclement were subjective factors and not objective ones. In other words, it was because we had committed the mistake of a pure defence line in military command in discordance with the basic strategic and tactical laws of the Chinese civil war.)

1935년의 결의요강에서는 전적으로 군사적인 차원의 논의만 펼치고 있는데 정작 역사결의에서는 정치, 군사, 조직 중에서 정치의 오류를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실패가 아니라 군사적인 실패였다는 것이 보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마오는 당시의 상황이 ‘객관적’인 조건(가령, 절대적인 군사력 차이)에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잘못된 판단과 전략, 즉 ‘주관적’ 오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한다.) 또한 1935년 결의요강에서는 보구의 ‘부분적이면서 심각한(partial and serious)’ 군사 실패를 좌경노선이라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순수방어노선을 우익 기회주의 노선의 잔재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1935년의 상황이 1945년에 결의된 역사보다는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모순에 관련해서는 몇 개 설명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는 당시 홍군 지도부의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대장정이

시작되기 직전 장시 소비에트에서 십만여 농민들을 동원한 사례 등은 혁명역량을 십분 발휘한 정치적 성과로 볼 수 있으므로, 장시 소비에트를 일궈낸 마오가 장시를 떠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정치적 오류’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둘째로 중국공산당과 코민테른의 관계 속에서 설명이 찾아질 수 있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코민테른과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관계는 불균형한 것이었고, 코민테른은 왕명, 보구 등 중산 대학 출신의 유소파들과 오토 브라운과 같은 코민테른 고문들을 통해 중국공산당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1927년의 중산 대학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와 관련한 불만은 전부터 중국공산당 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당시의 정치적 현실이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자립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보다 독립적인 사유를 품은 중국공산당원들도 마땅한 대안이 없었으므로 그런 불만을 어떠한 정치적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 대장정으로 인해 코민테른과 중국공산당 간 소통이 1921년 이후 처음으로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급하게 도주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통신 기기를 버리고 가야 했던 것이다. 이런 고립 상황은 마오에게 중대한 정치적 기회를 제공했는데, 절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매우 명백한 책임 소재와 책임자들(즉, 보구와 오토 브라운)이 있었고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휘방 놓을 수 있는 후견자의 간섭(즉, 코민테른의 개입)의

부재라는 조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정치적 의식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불과 14년 전 코민테른과 소련의 철저한 감독 속에 (마오를 포함한) 십수 명의 중국 젊은이들의 결사에서 출발한 중국공산당에 있어서는 꽤나 의미 있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쑨이는 마오에게 손쉬운 승리였다. 죽을 고생을 하는 중에 홍군 지도부 중 오토 브라운과 보구의 편을 들 자는 누구도 없었고 통신 단절로 코민테른 역시 개입할 수 없었으니 간단한 비판 연설 하나만으로도 이들을 탄핵하고 지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살아남는다는 가정 하에) 언젠가는 코민테른에 상황 보고를 하게 될 오토 브라운이 참석한 상황에서 굳이 왕명, 리리싼 등을 거론하며 정치노선의 당부당을 논하는 것은 소련 및 코민테른 측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필요한 액션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마오는 1935년 쑨이에서 가장 확실한 비판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945년 역사결의의 쑨이 재해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1985년 이후 학자들이 고루 지적하듯이 1935년 문헌들에 비친 쑨이는 역사결의 속 쑨이만큼 드라마틱하지 않다. 그렇다면 마오가 사후적으로 권력 강화를 위해 쑨이라는 자전적 소설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지로 정풍운동은 마오의 권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오히려 1945년 역사결의는 마치 1935년의 마오가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을

뒤늦게 쏟아내고 있는 듯한, 가령 쫘이보다 더 오래된 불만을 토로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 쫘이회의의 재구성:

### (2) 오토 브라운의 쫘이-1960년대의 회고

마지막으로 오토 브라운의 1960년대 회고가 앞서 제시한 설명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1960년대까지 그 정체조차 숨겨져 있던 오토 브라운은 마오에 대한 원한이 심한 인물이었다고 자신의 회고에서 그런 감정을 전혀 숨기려 하지 않았다. 중국공산당이 쫘이를 기억하기로 한 방식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비판을 가한다. 독일 출신으로 어린 나이부터 세계혁명의 대의에 참여한 오토 브라운의 입장에서 쫘이는 정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토 브라운의 회고는 1935년에 이미 중국공산당 내 독자적 정치의식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준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홍군을 지휘했던, 회의 내내 담배만 태우며 침묵하였다고 전해지는 오토 브라운의 입장에서 대장정 시기 정치적으로 고립된 중국공산당 내부의 풍경은 낯설고 과연 “이상(peculiar)”한 것이었을 것이다. 브라운은 쫘이가 두 가지 측면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회고하는데, 첫째는 마오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수결주의가 도입됐다는 것이고 둘째는 쫘이회의가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

자본주의 세계의 모순, 국제적 상황 및 대소련관계’ 등 “혁명의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오직 군사적인 주제만 논의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마치 미리 짜놓은 것처럼 긴히 결의를 요하는 혁명의 기본 문제들, 가령,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세계의 기본적 모순, 민족통일전선의 필요성 같은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국제 정세나 중국공산당과 소련의 관계, 심지어는 국민당 점령 지역들에서의 공산당 투쟁조차도 논해지지 않았다. 항일 투쟁의 미래, 당과 혁명정부의 구호마저도 무시되었다. 의제로 유일하게 허락된 문제는 장개석의 제 5차 초공 작전에 대한 투쟁과 대장정의 첫 번째 단계였다. 그 회의의 구성을 생각해본다면, 이런 주제 선정은 마오의 반동적 기획에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그는 중앙위원회의 전반적인 노선을 공격하지 않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굴었다. 대신 그는 간략하게 노선이 옳았다고 선언하고 “부분적 우경 기회주의 오류”를 언급했을 뿐이다. 그는 나중에 똑같은 “오류들”을 “제 3차 좌경오류”라고 비난했다. 그의 주된 비판은 중앙 홍군의 전략 전술, 즉 군사적 문제만을 겨냥하고 있었다.

## 나가며

쭌이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쭌이회의는 단순히 당내 노선 투쟁으로 보기보다는 당대의 국제정치적 상황, 특히 코민테른-중국공산당 관계와 관련하여 고찰되었을 때 더 정확히 이해될 수 있다. 태생적으로 코민테른과 소련의 지속적인 지시와 간섭, 친소·유소파의 호가호위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중국혁명가들의 불만이 축적되고 있었고 대장정은 코민테른과 중국공산당 간 통신을 단절시킴으로써 중국혁명가들로 하여금 창당 이래 처음으로 온전히 독립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였다.

둘째, 이런 국제정치적인 접근은 1945년 역사결의의 설명과 1935년 쭌이문헌에 드러난 현장의 언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1935년에는 오류가 아니었던 것이 어째서 1945년이 오류이게 되었는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아직 중국공산당의 역량이 코민테른 및 소련으로부터 완전히 정치적으로 독립할 만큼 성숙하지 못한 1935년의 조건 속에서 코민테른 고문 오토 브라운과 유소파 보구 등에 대해 마오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 더욱이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대장정 혁명가들 간 암묵적 동기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들(오토 브라운 및 보구)의 여러 오류 중 가장 명백한 ‘군사적’ 실책에 대해서만 지적해도 이들을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데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는 십 년이 지나 역사결의를 통해 쑨이 이전의 좌경노선의 정치적 잘못을 날낱이 고발하였는데 이로부터 1935년 쑨이에서는 비록 ‘군사’에 대한 비판만 있었을지언정 그들의 정치적인 불만이 군사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1960년대까지도 마오의 결정에 대한 반대 견해를 견지하여 온 오토 브라운의 쑨이에 관한 회고는 이러한 국제정치적 배경의 실재성에 설득력을 더한다.

## 참고문헌

### 1. 1차 문헌

#### (1) 1935년 쑨이문헌

Ch'En, Jerome. "Resolutions of the Tsunyi Conference." *The China Quarterly* 40 (1969): 1-38.

Resolutions of the Tsunyi Conference (Translated in 1969 with a Commentary by Jerome Chen)

The Outline Resolution of the Enlarged Politburo Conference on Summing up Experiences and Lessons in Smashing the Fifth "Encirclement" Campaign (The Secretariat of the Central Committee, 8 February 1935) (Translated in 1986 by Benjamin Yang)

Notes for Communicating the Enlarged Politburo Conference at Zunyi (By Chen Yun, February-March 1935) (Translated in 1986 by Benjamin Yang)

#### (2) 역사결의

1945년 역사결의 (关于若干历史问题的决议)

(<https://www.12371.cn/2021/11/09/ARTI163645573220114>)

9.shtml)

1981년 역사결의 (Resolution on Certain Questions in the History of Our Party since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resolution-certain-questions-history-our-party-founding-peoples-republic-china>)

2021년 역사결의 (Resolut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On the Major Achievements and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Party Over the Past Century)

(<https://yizhiyoudao.kuaizhan.com/85/75/p85870037710de9>)

### (3) 오토 브라운 회고록

Braun, Otto. *A Comintern Agent in China 1932-1939*. Translated from the German by Jeanne Moor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 2. 2차 문헌

이시카와 요시히로. 손승희 옮김, 『중국근현대사. 3, 혁명과 내셔널리즘(1925-1945)』 삼천리, 2013.

보겔, 에즈라. 김규태 옮김, 『중국과 일본』 까치, 2019.

向青. 임상범 옮김, 『코민테른과 中國革命關係史』 고려원, 1992.

이시카와 요시히로, 강진아 옮김, 『중국공산당, 그 100년』  
투비북스, 2024.

조영남. "중국공산당의 세 개의 '역사 결의' 비교  
분석." *중국사회과학논총* 4.1 (2022): 4-30.

Ch'En, Jerome. "Resolutions of the Tsunyi Conference." *The China  
Quarterly* 40 (1969): 1-38.

———"Reflections on the Long March." *The China Quarterly* 111  
(1987): 450-465.

Kampen, Thomas. "The Zunyi Conference and Further Steps in  
Mao's Rise to Power." *The China Quarterly* 117 (1989): 118-  
134.

———"Wang Jiaxiang, Mao Zedong and the 'Triumph of Mao  
Zedong-Thought'(1935-1945)." *Modern Asian Studies* 23.4  
(1989): 705-727.

———*Mao Zedong, Zhou Enlai and the evolu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leadership*. NIAS Press, 2000.

Kocho-Williams, Alstair. *Russian and Soviet Diplomacy, 1900-39*.  
Palgrave Macmillan, 2012.

Litten, Frederick S. "Otto Braun's Curriculum Vitae—Translation  
and Commentary." *Twentieth-Century China* 23.1 (1997):  
31-61.

———"The Myth of the "Turning-Point" - Towards a New

- Understanding of the Long March”; in: Bochumer Jahrbuch zur Ostasienforschung, Band 25, 2001, S. 3–44
- Saich, Tony. "Writing or rewriting history? The construction of the Maoist resolution on party history." *New Perspectives on the Chinese Revolution*. Routledge, 2015. 299–338.
- "Where Does Correct Party History Come From? The Construction of a Maoist Party History." *Critical Readings on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4 Vols. Set)*. Brill, 2017. 101–141.
- From rebel to ruler: One hundred year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rvard University Press, 2021.
- Saich, Tony, and Benjamin Yang. *The rise to power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ocuments and analysis*. Routledge, 2016.
- Shen, Zhihua. *A Short History of Sino–Soviet Relations, 1917–1991*. Palgrave Macmillan, 2020.
- Yang, Benjamin. "The Zunyi Conference as one step in Mao's rise to power: a survey of historical studie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China Quarterly* 106 (1986): 235–271.
- From Revolution to Politics: Chinese Communists on the Long March*. Routledge, 2021.
- Mao, Zedong, and Stuart Schram. *Mao's Road to Power: Revolutionary Writings, 1912–49: v. 5: Toward the Second*

*United Front, January 1935–July 1937: Revolutionary Writings, 1912–49.* Routledge, 2017.

Schram, Stuart Reynolds. *The thought of Mao Tse-tu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21세기 ‘평화의 구조’를 모색하며: 키신저-저우 42시간 대화록 읽기 자금성

**황여준**

성균관대학교

## 들어가며

1950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져 있는 균열의 틈에는 늘 대만이 있어왔다. 22년 간의 단절에서 첫 공동선언으로 나아간 1972년의 “중국을 향한 개방” 정책은 미국 외교사에서 극적인 순간으로 꼽힌다. 미국 정치권 내에 여전히 남아 있던 반공주의 진영의 반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중국과 화해에 나설 수 있었던 여건과 전략은 오늘날에도 큰 의미와 울림을 준다. 또한 중국을 둘러싼 복수의 안보 불안과 인도차이나 반도 내의 전쟁이 연출한 복합적인 상황, 미-중-러의 삼각 관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작금의 정세와도

겹쳐 보이는 점이 있다. 당시 미국과 중국이 거의 동시에 서로를 향한 정책을 조정하고 대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러한 일치가 가능했던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일은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1972년 상하이 공동선언이 조형된 키신저의 두 차례 방중(1971년 7월과 10월)에 걸친 키신저-저우의 42시간 대화록에 주목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중국을 향한 개방” 정책이 추진 및 지속될 수 있었던 동기나 여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미-중 협상 결과를 평가한다.

## 미국의 대중 정책 조정 과정: 존슨 행정부 시기까지

1972년 닉슨의 방중이 성립하기까지의 과정에 닉슨과 키신저를 포함한 극소수의 인원만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니셔티브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데도 닉슨의 의중이 주요하게 작용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닉슨이 과감하게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은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부터 무르익어 오고 있었다.

미국 관료 체제가 중국에 대해 가진 ‘이미지’는 중국의 내부 상황과 대외 정책 및 여건에 따라 변화해 왔다. 이블린 고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로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로서 소련과 단일한 세력으로 인식하는 ‘붉은 위협 세력(Red Menace)’, 중국이 공격적인 혁명 이념을 가졌다고 보면서도 소련과 중국의 라이벌

관계를 인식하는 ‘혁명적 라이벌(Revolutionary Rival)’,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비롯해 경제 개발과 현대화에 좌절을 겪은 중국을 동정적으로 바라보는 ‘불안한 현대화 국가(Troubled Modernizer)’, 중국의 과거의 영광과 수치심에 주목하는 ‘재기하는 세력(Resurgent Power)’까지 4가지로 정리했다. 앞선 두 이미지가 미국의 정통 냉전적 관점을 반영한다면, 뒤의 두 이미지는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에 맞춰 부상한 수정주의적 관점을 담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정주의적 이미지로의 전환은 케네디 행정부에서부터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인도 국경 분쟁, 대만 해협 위기, 중국의 핵 무력 개발, 제3세계에서 확장되는 중국의 영향력 등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을 경계하면서도, 케네디 행정부는 소련과 중국의 갈등과 대약진 운동의 실패 등에서 대중국 정책 노선을 수정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색했다. 존슨 행정부가 들어선 1965년에 이르러서는 의회 외교위원회에서 중국과 소련의 갈등을 고려해 중국과 교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베트남에서 한국 전쟁의 비극이 재발할 것을 우려한 존슨 행정부는 이 같은 기류 변화에 빠르게 발맞춰 중국에 관계 개선 신호를 내비쳤다. (Xia, 2006) 그러나 같은 시기 중국에서 정점에 달해 있던 문화대혁명이 중국 관료 체제를 와해해 대외정책 추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화해라는 과제는 다음 행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미국이 이처럼 대중국 정책을 조정하게 된 배경을

요약하면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말미암아 중국을 향한 동정적인 시선이 생겼다. 둘째, 1965년에 중화인민공화국에 UN 성원권을 부여하는 안이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점이 시사하듯이, 국제 여론이 점차 미국의 비타협적인 대중국 정책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셋째, 베트남 전쟁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보다 큰 틀에서는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공산권을 향한 완화된 정책을 추구하게끔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중-소 갈등이 가시화되고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변화한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었다.

## 닉슨 행정부와 중국의 첫 접촉까지

1968년, 닉슨과 넬슨 록펠러가 공화당 경선 후보로 경쟁하던 무렵, 닉슨과 (록펠러의 캠프에 있던) 키신저 모두 중국 봉쇄를 포기하고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둘의 접근법에는 차이가 있었다. 닉슨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됐음을 거론하며, 아시아 내 동맹국들의 안보에 ‘자기 책임의 원칙’을 내세웠다면, 키신저는 그가 작성한 연설에서 “닉슨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세력 균형 정책 틀의 일환으로” “공산주의 중국을 향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밝혔다. (Tudda, 2013, p.3) 키신저 또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되기 이전부터 미-중-소 삼각 외교와 세력 균형의 견지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키신저의 접근법에 감명받은 닉슨은 경선 승리 몇 주 후에 키신저를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영입했다.

닉슨이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대립의 시기”에서 “협상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며 대외정책의 변화를 시사했지만, 그가 처음부터 1972년의 “중국을 향한 개방”과 같은 형태로 중국 정책을 구상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존슨 행정부 시기 NSC 중국 전문가 알프레드 쟈킨스는 중-소 갈등이 중국이 미국과 대화에 나설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미국과 “근본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의심했고, 이러한 회의적 시각은 미국이 화해에 나서기를 망설이게 만들었다. 이 같은 회의적 시각은 닉슨 행정부에도 이어져, 국무부 내 관료 모두 중국 지도부와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sup>2</sup>

---

<sup>2</sup> “중국을 향한 개방” 정책의 틀이 어디에서 마련됐는지를 두고 투다와 고의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다는 무게 중심을 닉슨에 두고 1972년 정상회담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반면, 고는 닉슨-키신저의 협상 전략과 정책 틀이 국무부를 비롯한 관료 체제 내에서 먼저 제시된 것으로 본다. 본 보고서는 고의 관점을 주로 참고했다.

1969년 2월, (중국이 회담 이틀 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바르샤바 대사급 회담에 관해 논의하는 문서에서는 대만에 주둔한 미군 병력 문제에 관해 재검토할 의향을 중국에 보여줄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당시 국무부 장관 로저스와 키신저에 의해 기각됐다. 이처럼 닉슨의 취임 초기 미국의 중국 정책은 ‘탐색 국면’에 머물러 있었다. (Goh, 2004, p.130)

닉슨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3월에 중-소 국경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변화했다. 소련에서 보이는 미국과 중국의 밀착에 대한 불안감에서 힌트를 얻은 닉슨과 키신저는, 1969년 중순을 기점으로 “중국을 향한 개방” 정책을 그려 나가기 시작했다. 1969년 5월 NSC 회의에서 키신저는 “역사는 적대적인 두 세력 중에서 더 약한 편에 설 것”을 제시한다며, 세력 균형 정책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의지를 보였다. (Xia, 2006, p.141에서 재인용) 같은 해 9월, 닉슨과 키신저는 주폴란드 대사 스토셀에게 중국 측 인사에게 바르샤바 대사급 회담을 재개하자는 요청을 전하라고 지시하면서, 닉슨 행정부 시기 중국과의 첫 접촉이 이뤄졌다.

## 두 번의 바르샤바 회담, 백악관과 국무부의 교차와 분기

닉슨은 대통령 취임 이후 키신저와 함께 외교 정책의

주도권을 국무부에서 백악관과 그 산하의 NSC로 옮기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키신저의 관료 체제를 향한 불신과 팔시는 저우언라이와의 대화록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농담에서도 여러 차례 드러난다. 닉슨과 키신저의 관료 불신 탓인지, “중국을 향한 개방” 정책은 닉슨 행정부 시기 중국과의 세 번째 바르샤바 회담 결렬 이후 파키스탄과 루마니아를 통한 ‘비밀 채널’을 중심으로 극소수의 인원에 의해 추진된다. 그러나 키신저가 여러 곳에서 국무부를 대중국 정책의 걸림돌처럼 묘사한 것과 달리, 두 차례 바르샤바 회담 과정에서 국무부가 스토셀에게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내용은 이후 키신저와 저우의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대만 문제는 한국 전쟁 이후 미국과 중국 관계를 22년 간 단절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으며, 134번에 걸쳐 진행된 바르샤바 회담이 줄곧 정체되게 만든 문제이기도 했다. 닉슨 행정부 시기 두 차례 바르샤바 회담의 주된 안건도 대만 문제였다. 첫 번째 바르샤바 회담에서 스토셀에게 국무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대만 문제에 관한 세 가지 새로운 입안이 담겨 있었다. 새로운 입안에는 “미국은 베이징과 타이페이에 의한 대만 상황의 평화적인 안착에 개입하지 않을 것(would not stand in the way)”과 “대만의 본토를 향한 공격적인 군사 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 “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이 정착됨에 따라 대만에 주둔한 미군 병력을 감축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 더해 국무부는 중국 측에 중국 대표단이 워싱턴에, 혹은 미국 대표단이 베이징에 가 회담을 열 것을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는데, 중국 쪽 참여자인 레이 양 또한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양쪽이 첫 바르샤바 회담에서 동시에 관계 진전 의지를 보이면서, 키신저는 닉슨에게 중국과 관계 개선에서 미국이 무엇을 취하고 중국에 무엇을 내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Accinelli, 2006, p.14에서 재인용)

두 번째 회담 준비 과정에서 국무부는 대만 문제를 정치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으로 나눠 협상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대만에 배치된 미군이 증가된 점을 거론하며, 국무부는 베트남 전쟁의 종결과 대만 배치 병력 감축을 연계시키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이 같은 아이디어는 이후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할 때도 그대로 반영된다. 반면 정치적 측면에서의 대만에 관한 입장 표명은 국무부가 제시한 안이 이후 키신저가 저우에게 밝히는 미국의 입장보다 더 보수적이었다. 국무부의 전략 문서에서는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을 “충분히 모호하게 해 양쪽(미국과 중국) 모두가 각자가 원하는 바를 계속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래에 미국은 대만의 상황이 “미결정(Undetermined)”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무부 전략 문서는 이 같은 입장이 미국이 대만의 안보를 계속해서 보장하는 데 유리하다며,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대만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닉슨은 고위급 회담

추진 의사를 더 강하게 밝힐 것을 주문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국무부의 전략에 만족했다. (Accinelli, 2006, p.16)

미군의 캄보디아 진입으로 인해 결렬된 세 번째 바르샤바 회담 준비 과정에서 국무부는 고위급 회담의 6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 (1) 대만과 관련된 분쟁은 본토와 대만의 직접적으로 관계된 당사자들 간에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 (2) 미국은 그러한 합의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 (3) 지역 내의 긴장이 감소함에 따라, 대만 내 주둔한 미군은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다.
- (4)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평화적 협상으로 해결할 것이다.
- (5) 양측의 관점에서 상호 접촉과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평화적 공존의 (다섯 가지) 원칙은 앞선 원칙들과 일관된다.

세 번째 회담 결렬은 백악관이 중국 정책에서 완전한 주도권을 질 기회를 만들었다. 국무부가 바르샤바 회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틀은 앞서 언급했듯 이후의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유지된다. 그러나 대만 문제에 있어 대만이 “미결정” 상태라는 입장을 유지하려는 의지는 국무부가 닉슨과 키신저보다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키신저는 저우와의 첫 번째 대화에서 해당 입장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빨리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 더해 국무부는 백악관보다 고위급 회담으로의 진전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며, 중국의 의도를 더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키신저는 중국이 처한 안보 불안이 미국과의 근본적인 관계 개선에 나서기에 충분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판단했다. 대만에 관한 미묘한 태도 차이와 정책 속도에 있어서의 이견은 닉슨-키신저가 독자적으로 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 키신저-저우 42시간 대화 읽기 (1) 성급한 양보?



▲ 키신저와 저우의 첫 회담 장면 (National Security Archive)

본 보고서는 주지하듯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1972년 2월 데탕트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키신저-저우의 대화록을 읽으면서 답하고자 하는 핵심 질문은 미국의 데탕트 정책이 어떻게 추진 및 유지될 수 있었는지, 최종적으로 ‘상하이 공동선언’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미국의 대내외적 여건과 의지는 무엇이었는지에 관한다. 키신저가 첫 번째 비밀 방중에 앞서 키신저가 직접 작성했을 ‘POLO I’ 브리핑북에는 키신저가 설정한 방중 및 데탕트 정책 전반을 추진하는 목적이 적혀 있다. 그가 밝히는 목적은:

- ① 북베트남이 베트남 전쟁의 평화적이고 수용 가능한 합의를 향해 움직이도록 중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이라는 보장이라고 볼 수 있는 충분히 견고한 조짐(Indication firm enough to be taken as assurances)
- ② 미국이 대만과의 외교적 관계와 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만 문제에 관한 미-중의 협의(modus vivendi)
- ③ 미국 대표단을 베이징에 보내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것을 포함해, (군비 통제, 무역과 관광 확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긴장 완화 같은) 상호 이해에 관한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연락에 해당하는 형식으로 미-중 관계를 지속하는 것

- ④ 중국이 세계 정세에서 소련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지와 이것이 소련의 군사 능력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까지 총 네 가지다. 두 번째 방중에 앞서서도 같은 형태의 ‘POLO II’ 브리핑북이 준비된 것으로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자료는 POLO I 브리핑북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에 대한 전망은 달라졌을지라도, 데탕트 전반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지됐기 때문에, 위의 네 가지 목표에 기초해 키신저의 42시간의 협상 기록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가지 목표 중에서도 닉슨과 키신저에게 있어 가장 우선시된 것은 베트남 전쟁을 수용 가능한 형태로 종결하기 위해 중국의 영향력을 빌리는 일이었을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저우는 키신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정중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 미국의 평화 협상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단호하게 밝히고 있다. 이는 직관적으로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동기에 균열을 낼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소련, 인도, 일본, 미국으로부터) 전방위에서 극심한 안보 위협을 받던 상황에서, 협상은 미국 쪽에 레버리지가 있었다고 봐야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후대의 미-중 관계에서 대만 문제에 관해 협상의 폭을 크게 위축시킬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데탕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질문해볼직 하다.

42시간의 대화는 키신저와 저우가 “실질적인 문제(substantive matter)”로 표현한 대만, 베트남 전쟁, 한반도, 일본과 소련을 포함한 “주요 세력과의 관계(great power relation)”, 인도-파키스탄 분쟁에 관한 의견 교환 및 협상과 닉슨의 중국 방문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technical matters)”에 관한 논의로 이뤄진다. 실질적인 문제는 다시 양국의 관계 진전을 위해 논쟁과 협상을 벌인 “근본적인 문제(fundamental issues)”와 논쟁적인 성격이 없이 양국이 각종 의제에 관해 가진 입장(특히 중국의 안보 불안을 불식하기 위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의견 교환, 그리고 차후 관계 개선 프로세스를 원활히 하기 위한 소통에 관한 문제(정부 공식 논평이나 워싱턴-베이징 “핫-라인” 설치 등)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양국은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비공식적 의견 교류를 나누는 한편, 닉슨의 중국 방문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어떤 형태로 어느 수준까지 공식화할지에 관한 합의를 진행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의제를 대만과 베트남 전쟁 두 가지로 보고 각 의제를 둘러싼 대화에 중점을 두고 대화록을 살펴보려 한다.

1971년 7월 9일, 저우와의 첫 만남에서 키신저는 대만 의제를 “정치적 진전”에 관한 사안과 “병력 철수”에 관한 사안으로 나눠 접근할 것을 제시하면서, 정치적 진전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저우는 중국에게 있어 대만이 국내적 문제라며, 해외 세력인 미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일이 “정치적 진전”과 분리될 수 없다고 키신저의 접근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비친다. 저우는 대만으로부터 병력 철수는 적어도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주권을 가진 영토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정치적 선언과 같다고 본 것이다. 키신저의 접근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저우는 곧 대만 문제에 관한 합의와 공식적 발표가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저우와 그의 뒤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마오는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 최종적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제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를 1972년에 있을 닉슨의 방중을 위한 전제로 내걸지는 않았다. 마오와 저우가 대만 문제 해결에 시간적 여유를 보인 덕분에, 양국의 대만에 관한 협상은 상호 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반영한 논쟁이 아닌, “정치적 단계의 타이밍(the timing of political steps)”에 관한 협상으로 국한될 수 있었다.

키신저 역시 중국에 맞춰 한 걸음 거리를 좁혔다. 앞서 살펴봤듯이 바르샤바 회담 단계에서 미국은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미국이 방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상태를 향해 대만 해협 양측이 합의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진일보한 입장이면서도, 여전히

대만이 “미결정” 상태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여기에서 키신저는 처음부터 기존 미국의 입장에서 한 발짝 나간 상태로 협상을 시작한다. 7월 9일 첫번째 대화에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대만이 “미결정” 상태라는 발표를 한 것을 저우가 키신저에게 지적하자, 키신저는 그가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지 않았다고 반발한다(뒤이어 중국 측에서 조소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웃음이 나온다). 같은 문제에 관해 다음 날 두 번째 대화에서 저우가 국무부 대변인이 입장을 되풀이하지 않았다고 한 게 맞냐고 재확인하자 키신저는 “실수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대답한다.

저우는 두 번째 대화에서 (아마 전날 대화를 마오에게 보고하고 함께 상의한 뒤) 중국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할 것.
-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할 것.
- 미국이 두 개의 중국 혹은 한 개의 중국, 한 개의 대만 원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받아들일 것.
- 대만 독립 운동을 지지하지 않을 것.

여기에 “국무부 대변인은 자신이 말한 바를, 즉 대만이 미결정

상태라는 입장을 되풀이하지 말 것”이라는 조건이 덧붙여져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키신저는 관계 진전을 위한 조건 중 “대통령은 분명 두 개의 중국 해결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님의 두 번째 지점, 즉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점에 관해서는 바로 그 점이 나머지 세 가지 지점도 모두 해소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즉, 키신저가 정리한 중국 측의 첫 번째 조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네 가지 조건은 모두 이미 비공식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거(다음 미국 대선) 이후까지 남겨둬야 하는 유일한 문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공식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앞서 소개한 키신저의 목표에 따르면, 키신저는 대만 문제에 관해 대만과의 외교적 관계와 방위 조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 목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질 수 있다. 중화민국 정부를 대표성과 정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순간, 중화민국 정부를 조약에 조인할 자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키신저는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대신 “앞으로 일 년 반(닉슨의 첫 번째 임기 끝) 동안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없습니다”라고 밝힌다. 키신저는 이 점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대답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인 발전(political evolution)”은 두 번째 임기부터 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한다. “두 개의 중국, 혹은 한 개의 중국, 한 개의 대만 원칙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입장 사이에 어떤 중간 단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키신저가 말한 “정치적인 발전”은 결국 중국과 외교 관계 확립을 위해 저우의 첫 번째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키신저는 처음부터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승인하는 동시에 중화민국 정부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놓았다고 봐야 한다. 키신저가 설정한 목표는 닉슨의 첫 임기 동안에만 유효한 단기적인 목표였을 것이다.

키신저가 한반도의 주한미군 의제를 논할 때는 적극적으로 사용한 ‘일본 카드’는 대만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저우는 대만에서 미군이 철수했을 때 장개석이 일본이나 소련과 결탁할 가능성에 관해 진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드러낸다.

저우: (...) 반면 지금은, (대만에서) 병력 철수는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미국은 또한 우리와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대만을 잃지 않을, 혹은 일본이 대만의 일에 손을 대고 간섭하지 않도록 할, 대만에서 독립 운동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를 표하는 저우의 발언은 대화록 곳곳에 등장한다. 키신저는 그때마다 간단하게 “우리는 일본이 대만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간단하게 대답한다. 키신저의 10월 두 번째 방중에서 이뤄진 대화의 한 부분에서는 “우리는 일본이 대만에 병력을 배치하거나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응당 반대할 것이고, 또 우리가 일본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의 정도만큼 일본이 대만의 독립 운동을 지지하려는 시도에도 반대할 것입니다”라며 일본에 직접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할 것을 시사한다.

키신저의 두 번째 방중에서 양측은 대만 문제에 관해 7월 대화에서 나뉘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대만 의제를 일단락 짓는다. 향후 공동선언에서 미국이 대만에 관한 입장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치열한 줄다리기가 오간다. 다만 이는 대만에 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반영한 것이 아닌, “정치적인 발전”의 속도 조절에 관한 설왕설래에 해당한다.

## 키신저-저우 42시간 대화 읽기 (2) 단호한 거절과 여전한 기대

1971년 5월 26일,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곧 있을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에 관해 논의하면서 미-중 대화를 통해 중국의 의도가 미국에 분명히 전달된다면, 베트남의 저항이나 파리 평화 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해 7월 5일, 키신저의 방중으로부터 4일 남은 시점에 저우는 인도차이나 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비-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고 호주 노동당 대표와의 대화에서 밝혔다. 이처럼 인도차이나 반도 문제를 이룬 시일 내에 평화적으로 종결하려는 의지는 중국과 미국 모두가 가지고 있었다. (Danhui, 2006, p.190) 닉슨과 키신저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인도차이나 문제 역시 중국에게 안보 불안으로 여겨졌던 상황에서 중국이 지역의 안정을 바랄 것이라는 계산은 충분히 가능하다.

42시간의 대화에서 인도차이나에 관한 입장을 피력할 때, 키신저는 베트남과의 협상 과정에서 겪고 있는 난항과 미국의 진정성 있는 철군 의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려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키신저는 키신저가 저우로부터 베트남과의 협상에 필요한 조언을 기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키신저가 어려움을 토로하면 저우는 장광설로 받아치는 모습이 여러 차례 연출된다.

키신저: 북베트남은 지나치게 의심이 많고, 우리가 자신들은

속이려 한다고 너무 굳게 믿은 나머지, 저들은 우리 제안에서 합정을 찾아내거나, 찾아내지 못할 경우 찾아낼 때까지 우리의 제안을 거절할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 머릿속이 온통 자신들을 교묘하게 조종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습니다. 이견 사실이 아닙니다. (…)

키신저는 두 번의 방중 모두에서 중국이 베트남과의 협상에 도움을 줄 것을 여러 차례 정중히 부탁한다.

키신저: 만약 우리의 친구 중 누군가가, 대답하기를 원치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들(베트남)이 일정한 정치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들의 관점에 도움을 준다면, 전쟁은 급격하게 종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우는 키신저의 부탁이 있을 때마다 대답하지 않거나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내비친다.

저우: 우리 두 국가(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여러 해 동안 단절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사하는 어휘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뜻을 강요하는 일을 벌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뜻을 강요하지 않는 것은 마오 주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

저우는 또한 키신저가 사격 중지와 철수의 시점에 관해 논할 것을 제안하자 “우리는 베트남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베트남인들과 논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해에 관한 일을 우리와 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라며 중국은 미국과 베트남 사이 일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또 두 번째 방문에서 레 득 토의 9개 평화 제안에 대한 답으로 미국이 제시한 8개 제안을 키신저가 소개하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제안이라고 주장하자, 자신이 그 제안을 직접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하기 어렵다며 관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이처럼 저우는 때로 “미국이 먼저 어긴 제네바 협약을 베트남인들에게 지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등 베트남의 감정이나 관점을 변호하고 키신저에게 조언을 건네면서도, 중국이 직접적인 참여자가 되는 일은 매우 경계한다. 그러나 미국과 베트남 사이의 평화 협상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는 저우의 덕담은 진심이었던 듯하다. 키신저는 “협상이 없더라도, 우리는 결국 일방적으로 철수할 테지만, 이는 더 오래 걸릴 것이고 그동안 사이공 정부는 더 많은 장비로 강화될 것”이라며 협상이 지연될수록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도, 종전도 멀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전략은 저우에게 유효했는지 7월 13일, 저우는 베트남에게 미국과의 첫 고위급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국이 응우옌 반 티에우 정권을 무너트릴 것을 주장하지 말고 베트남에서 미군의

철수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설득한다. (Danhui, 2006, p.193)

10월 방중 이후 키신저가 닉슨에게 방중 결과를 설명하는 문서에서는 키신저가 중국이 베트남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줄 것임을 기대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키신저는 주요 의제에 관한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서 인도차이나 문제에 관해 “베이징은 제한된 수준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식, 비공식 대화 모두에서 중국인들은 협상이 꼭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이 점을 하노이에 말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라고 닉슨에게 보고한다. 흥미로운 점은 저우가 여러 차례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기는 했어도, 그 사실을 베트남에 전달할 것이라는 대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 나가며

‘붉은 위험 세력’이 ‘암묵적 동맹(tacit ally)’로 이행할 만큼 상황이 무르익는 데는 수많은 사건과 관료 내에서의 중국 정책 재평가, 국내외 여론의 변화 등이 동반됐다. 1970년대 초와 현재는 각국의 국력의 수준 등 중요한 지점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빚댄 단순한 비교는 도리어 잘못된 지침만 줄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양쪽의 소수 리더십에 의해 추진된 데탕트와 그 속의 협상 과정에서 천칭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기울어졌다면 거기에는 어떤 요인이 있는지, 무엇을 시도해볼 수 있었고 무엇이

필연적이었는지 구분하는 작업은 세계 정세의 중심 위치에 놓인 국가로서 주요 세력 간의 타협과 대결의 국면 전환을 기민하게 예측·감지·대응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미-중 데탕트 과정에서 대만이 처했던 상황을 떠올리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외피상에 드러나는 제한적인 문헌으로 주요 세력들의 대화를 연상해내는 역량이 무척 긴요하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다.

키신저가 그의 회고록에서 주장한 것처럼, 미-중 데탕트는 양쪽에 어떤 지도자가 앉아 있었더라도 결국에는 일어날 사건이었다. 미국의 대중 정책 조정 과정을 통해 알아봤듯, “중국을 향한 개방” 정책은 닉슨의 독단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에 가까웠다. 42시간의 대화록을 이루는 논의를 살펴보더라도, 미-중 관계를 단절시킨 가장 주된 요인이었던 대만 문제에 있어서 조차 극복해야 할 만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대화의 전제 조건(베트남 전쟁 종결이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당성 인정)을 걷어내고 미국이 전향적인 양보를 한 결과, 바르샤바 회담의 종료에서부터 1972년 닉슨에 방중에 이르는 길은 양국의 필요에 따라 비교적 순탄하게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닉슨-키신저가 중국에 취한 접근법과 비밀 외교 전략, 관계 개선의 속도까지 역사적 필연으로 환원하는 설명은 별로 생산적이지 않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다. 미국에게 있어 베트남 전쟁 종결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기는 했으나, 그것이 별다른 논쟁도 없이 사실상 처음부터 중국이 내건

조건(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할 것)을 수용할 만큼 급박했는지는 대화록만으로 알기 어렵다. 아시아 전역에 걸친 국제정치적 문제에 관한 양국의 관점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는 대화록은 여전히 귀중한 사료이자 다양한 연구 주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번 보고서가 앞으로의 공부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보고서를 마친다.

## 참고문헌

### 1. 1차 문헌

National Security Archive. “Nati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Briefing Book 66: Henry Kissinger’s Secret Trip to China: The Beijing–Washington Back–Channel, September 1970–July 1971”. 2002.

---“Nati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Briefing Book 70: Negotiating U.S.–Chinese Rapprochement: New American and Chinese Documentation Leading up to Nixon’s 1972 Trip”. 2002.

POLO I, “Briefing Book for the President” (Taiwan), July 1971, box 1032, NSCF.

### 2. 2차 문헌

Accinelli, Robert. “In Pursuit of a Modus Vivendi: The Taiwan Issue and Sino–American Rapprochement, 1969–1972”. In Kirby, William C., Robert S. Ross, and Gong Li, eds. *Normalization of US–China Relations: An International History*. Vol. 254. BRILL, 2020.

- Goh, E. (2004). *Constructing the US Rapprochement with China, 1961 – 1974: From 'Red Menace' to 'Tacit All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cMillan, Margaret. *Nixon and Mao: The Week That Changed the World*. New York: Random House. 2007.
- Tudda, Chris. *A Cold War Turning Point: Nixon and China, 1969– 1972*. LSU Press, 2012.
- Xia, Yafeng. *Negotiating with the enemy: US–China talks during the Cold War, 1949–1972*. Indiana University Press, 2006.

中·蘇의 後進國  
National Bourgeoisie에 대한 立場

河英善

外交學科 67296

目次

- I. 問題意識의 出發
  - II. 革命과 National Bourgeoisie
  - III. Lenin과 毛澤東의 立場
  - IV. 兩國의 立場의 變遷過程
  - V. 相異한 立場의 몇 가지 原因들
  - VI. 結
- \* 註와 參考文獻

## I. 問題意識의 出發

美國에서 始作된 Area Study라는 研究分野는 그 出發動機가 美國의 對外政策의 보다 效率的인 遂行을 위한 基盤構築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韓國이라는 場所위에서 地域研究가 가지는 意義도 韓國의 對外政策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우리가 一次的으로 研究對象으로 삼아야 할 것이, 常識的 用語로 極東이라 불리우는 regional complex (美, 蘇, 中, 日, 韓(南, 北)에 의해 形成되는 複合體)이다. 그중에서도, 지나친 ideology의 편협성 때문에 taboo視되는 中·蘇와 韓國의 關係에 대한 철저한 理解가 先行되어야, 現象에 대한 正確한 把握과 妥當性 있는 行動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本 小考에서는 이에 대한 하나의 整地作業으로서 共產圈과 後進地域의 關係에서 核心的인 要素인 「中·蘇의 後進國 National Bourgeoisie에 대한 立場」을 糾明해 보려는 것이다.

分析方法으로서는, II.에서 Marxism의 革命理論에서 national bourgeoisie의 位置를 把握하고, III.에서 兩國의 初期의 基本立場으로서, Lenin과 毛澤東의 national bourgeoisie의 役割에 對한 立場을 比較하고, 다음 IV.에서 歷史的 展開過程을, 그리고 마지막 V.에서 立場의 相異의 몇 가지 原因을 試論的으로 論해 보겠다.

## II. 革命과 National Bourgeoisie

Marx는 그의 「共産黨宣言」의 結論部分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共産主義者들은 自己의 目的은 다만 모든 現存하여 있는 社會制度를, 暴力的으로 전복하는 方法으로써만 達成될 수 있다는 것을, 公同연하게 宣言한다」 ① 당시의 Marx의 눈에 의해 把握된 現存하여 있는 社會制度는 서로 敵對視하고 和解할 수 없는 두 개의 階級으로 分裂되어 있는 資本主義體制였다. 이와 같이 支配階級(資本家)과 被支配階級(勞動者)이 對立되어있는 속에서 眞情한 意味의 自由, 平等, 民主主義란 存在할 수 없으며, 國家權力은 小數支配階級の 道具化되어 「프로레타리아트」에 대한 暴力的 搾取機關의 役割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② 그러면, 勞動階級の 解放은, 이러한 狀況속에서, 어떻게 可能할 것인가? 이에 대한 對答이 그의 「프롤레타리아트」 革命論이다. ③ 그에게 있어서 革命은 階級鬪爭의 不可避한 發展이며, 革命的 變革 없이는 새로운 社會는 탄생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資本主義社會가 共産主義社會로 넘어가는 過程에서도 被壓迫階級인 「프로레타리아트」의 革命은 不可避한 것이며, 敵對的 對立關係 속에서는 暴力的인 性格을 가질 수밖에 없다. ④ Marx의 이와 같은 proletariat의 暴力革命은 그 成功條件으로서 항상 生産力의

發展程度를 前提로 하며, 또한 단순한 非組織的 大衆의 散發的 蜂起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單一階級으로 結集한 勞動者들의 全國的 蜂起를 뜻하는데, 그에 있어서 「모든 階級鬭爭은 政治鬭爭」인 까닭에 「프로레타리아트」의 階級으로서의 組織은 自然히 政黨의 組織이 된다.⑤ 이 「프로레타리아트」 계급이란 Engels의 定義에 의하면, 近代資本主義의 產物인 「賃金勞動者階級」을 말하며, 無産階級全體, 또는 「부르조아지」에 대립하는 모든 階級을, 이에 포괄시킨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프로레타리아트」 革命論은 뒤에 Lenin의 「國家와 革命」에서 보다 과격하게 展開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⑥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Marx의 革命理論을 간단히 考察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理論이 西歐라는 現實 속에서 形成된 것이고, 또한, 西歐에 적용하기 위한 理論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러시아의 女流革命家 Vera Sassulich의 便紙에 대한 Marx의 答狀이었다. ⑦ 당시(1881年)에 農業國家인 러시아에 있어서 社會主義者들은 Marx의 見解에 따를 경우 어떻게 行動해야 할 것인가를 물은 데 대해, Marx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❶ 나의 資本主義體制의 分析은 西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資本主義가 가는 길의 「歷史的 必然性」은 분명히 西歐諸國에 국한한다. ❷ 身分的인 勞動 위에 입각해 있는 私有財産은 다른

사람의 收奪, 賃金에 입각한 資本主義的 私有財産에 의해서 추방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西歐的인 길을 따를 경우 私有財産의 한 形態를 다른 形態의 私有財産으로 變革함이 문제된다. ③ 러시아 農民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대로 그들의 公有財産을 私有財産으로 變革해야 한다.

이와 같이 Marx에게 있어서 당시의 後進國이 러시아에서 社會主義革命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西歐의 現實에 입각한 그의 革命理論에 있어서 national bourgeoisie의 役割이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Lenin을 주축으로 하는 Bolshevik에 의해 러시아에서 10월革命이 成功하고, 기대되던 독일을 위시한 西歐에서의 革命이 挫折되자 狀況이 달라지게 되었다. 10月革命直前に 나온 Lenin의 「國家와 革命」은 Marx-Engels의 「프로레타리아트」의 暴力革命論에 입각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狀況의 變化에 따라 아세아로 視野가 오게 되자, 이제까지의 革命理論의 圖式만으로는 適用이 困難하게 되었다. 당시의 아세아에는 proletariat階級과 bourgeois階級, 人民大衆과 封建制度, 植民地와 帝國主義, 등의 矛盾이 複合되어 있었고, 또한 革命의 主體가 될 철저한 階級意識으로 무장한 「프로레타리아」의 힘이 미약했으므로, 불가피하게 革命에 있어서 national bourgeoisie의 役割이 重要한 問題로 부각되었다. 한편, 中國은 그들의 革命 수행과정에서 必然的으로 national bourgeoisie의 位置가 問題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한

그들의 체험 속에서 하나의 立場을 形成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음 章에서 이 兩國의 national bourgeoisie에 對한 初期의 立場을 Lenin과 毛澤東을 통해서 考察해 보기로 한다.

### Ⅲ. Lenin과 毛澤東의 立場

Lenin이 아세아로 눈을 돌렸을 때, 그곳에는 전혀 다른 狀況이 存在하고 있었다. 아세아의 中心部인 中國의 境遇에 勞動者들은 質的으로, 量的으로 未成熟段階에 놓여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아직 家長政治의 思考方式을 가지고 있었고, 血緣關係와 鄉土心이 아주 강했다. 따라서 이들이 手工業勞動者들로부터 産業勞動者로 전환한 후에도, 政治行動의 必要性을 認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①

이러한 現實속에서 量으로서의 農民, 質로서의 national bourgeoisie, 知識人의 革命過程 속에서의 役割이 輕視될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西歐와 같은 第四階級의 解放의 問題 이전에, 帝國主義 勢力으로부터의 脫皮, 封建勢力의 破壞와 같은 基本的인 問題에 대한 解決이 必要했기에, Lenin에게 있어서도 첫 段階로서 national-bourgeois革命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었다. ② 여기에서 後進國의 national bourgeoisie에 대한 Lenin의 立場을 보다 선명하게 把握하기 위해, 1920年

第二次世界共産黨大會에서 Lenin이 언급한 「民族的 問題와 植民地問題에 關하여(Zur Nationalen und Kolonialen Frage)」의 內容을 概觀해 보기로 한다. 이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7가지 內容으로 간추려 볼 수 있다. ③

1.) 植民地에는 이미 民族的 自立을 위하여 資本主義에 反對하는 廣範한 運動이 있다. 그러나 소련의 도움없이 이 民族들이 同等權을 爭取하기는 不可能하다.

2.) 自由의 運動들은 土着的인 民族的 bourgeoisie, 勞働者, 農民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것은 많은 階級들의 聯合이다.

3.) 이러한 聯合속에서 土着的인 共産主義者들은 「bourgeois民主的」인 自由의 運動을 支持해야 하며, 그러나 동시에 時代에 뒤진 階級들(聖職者와 地主)과 싸워야 한다. 특히 그들은 土地改革을 관철해야 한다.

4.) 國際共産主義는 植民地와 後進國家들에 있어서의 부르조아民主主義的인 民族運動을, 앞으로 프롤레타리아政黨의 要素들이 이들 國家內에서 規合되어 自己民族內에 있어서의 부르조아民主主義的인 運動에 대한 鬪爭課業이라는 特殊한 임무의 意識 속에서 길러진다는 條件下에서만이 支持하여도 좋다.

5.) 이것은 帝國主義勢力이 政治的으로는 獨立을 認定하나, 經濟的, 財政的, 그리고 軍事的으로 완전히 豫속화시킨 곳에서 이러한 政府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쟁이다.

6.) 그러나 聯盟을 이룬 곳에서는 그것은 다만 「일시적인 聯盟」일 것이다. 民族的인 브르조아民主主義의 革命家와 소련權力間的 그와 같은 聯盟속에서 世界帝國主義에 反對하는 새로운 타격의 方向이 成立된다.

7.) 소련의 模型을 따라 後進國들도 소련의 援助와 西歐의 革命的 proletariat의 도움을 받아 資本主義단계를 뛰어넘어 社會主義社會形態를 建設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Lenin의 언급은 그의 後進國의 national bourgeoisie에 대한 立場을 分明하게 밝혀주고 있으며, 그것이 그가 겪은 러시아革命[二月革命(브르조아民主主義者들의 革命)→十月革命共產主義者들의 革命]→(農地改革, 社會化, 非資本主義 模型에 따르는 産業化)→社會主義에서의 經驗을 보편화시키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注目할 점은 당시 이 these가 採擇될 때 印度共產主義者 M. N. Roy의 反對意見이 있었다는 것이다. ④ 그의 主張이었던 一次의인 局面에서부터, 共產主義者의 主導下에 革命이 進行되어야 한다는 主張은 후의 毛澤東의 主張과 一致하는 것이었다.

Lenin은 위에 提示된 these와 같은 立場에서부터, 1,922年 中國共產黨에게 國民黨과의 「國共合作」의 指令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그 結果는 장개석 軍事獨裁의 出現(1,927年)과 共產黨의 慘敗였다. 그 이후 長征과 같은 쓰라린 체험 속에서 毛澤東은 그 나름의 national bourgeoisie에 對한 立場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그의 최초의 글인 그의 故鄉인 湖南省에 關한 黨에 보내는 報告書에서 bourgeois의 類型을 三分해서, 첫째, 地主와 買辦 bourgeoisie(comparador bourgeoisie)-聯습이 不可能한 革命的 적-, 둘째, national bourgeoisie-이들의 態度는 兩面性을 가진다. 反帝國主義革命에는 同調하나, 無產者革命에는 反對한다. 셋째, 小bourgeoisie-自作農, 手工業者, 學生, 下級官僚, 小貿易商 等을 包含하며, 이들은 革命的 여명이 밝아오면 革命에 同調할 것이다-로 나누어서 그 性格을 規定하고 있다. 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毛澤東의 立場에서 볼 때 二重的인 性格을 가진 national bourgeoisie를 效率的으로 利用하기 위해, 그의 獨特한- 함께 革命은 하되 主導權은 共產主義者가 갖는다는-立場이 나오게 된다. 이 立場을 보다 明確히 把握하기 위해 그 후의 그의 理論展開를 보기로 하자. 1937年 8월에 쓰여진 「矛盾論」에서 主要한 矛盾과 矛盾의 主要한 側面을 說明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⑥ 「複雜한 事物의 發展過程에는, 많은 矛盾이 存在하지만, 그 속에 반드시 하나의 主要한 矛盾이 있고, 그것의 存在와 發展에 依해, 다른 矛盾의 存在와 發展에 影響을 끼친다.」 이러한 理論 밑에서 그가 中國에서 가장 主要한 矛盾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半植民地, 半封建狀態이며, 이것은 人民이 proletariat勢力에 依해 指導되어 被支配者로부터 支配者로 變할 때, 中國社會가 새로운 民主主義의 社會로 變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⑦ 이것은 1940년에 나온 「新民主主義論」,

「中國革命과 中國共產黨」에서 보다 具體적으로 論理가 展開되고 있다. 그는 「新民主主義論」⑧에서 現在의 狀況에서 社會主義의 段階로 가기 위해서는 新民主主義의 段階가 必要하다고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는 첫째, 農民, 둘째, 勞動者, 小bourgeoisie, 知識人, 셋째, national bourgeoisie의 聯合에 의한 獨裁體制의 共和國이 革命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national bourgeoisie의 二重的 性格을 밝히고 主導權은 줄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⑨ 「中國革命과 中國共產黨」은 前書의 理論的 基盤을 주는 것으로서 唯物史觀에서 本 中國의 歷史와, (여기에서도 아편전쟁 이후의 中國의 半封建, 半植民地로 把握하고 있다.) 新民主主義革命의 性格을 밝히고 있다. 그 性格의 內容을 要約해 보면, 「政治的으로는, 革命的인 여러 階級の 獨裁와 bourgeois 獨裁에 대한 反對이며, 經濟的으로는, 大資本과 企業의 保存, …」 等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bourgeois 獨裁와 社會主義 革命과는 區分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以上에서 本 바와 같이 毛澤東은 Lenin과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다른 見解를 取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後進國의 封建, 植民狀態로부터의 解放을 위한 革命에서 national bourgeoisie와 손은 잡되 獨自性을 認定하지 않는다. (bourgeois 革命의 否定) 둘째, 革命을 통한 新民主主義의 成立과 더불어, 土地改革, 社會化를 수행하여 他階級을 도태시킴으로써, 社會, 共產主義革命을 同時에 可能케 한다. 셋째,

新民主主義革命으로부터 社會主義革命으로의 移行은 위와 같은 改革의 完遂에 따라, 暴力的이 아닌 平和的 手段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毛澤東의 立場은 後進國에 있어서 Lenin의 革命 model과 함께 또 하나의 model을 提供하는 것이다. 따라서는 우리는 다음 章에서 이 두 개의 model이, 또, 이에 따른 national bourgeoisie에 대한 두 立場이 具體的인 歷史的 狀況 속에서 어떻게 變化해 갔으며, 얼마나 많은 結實을 맺었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 IV. 兩國의 立場의 變遷過程

##### 1. 立場의 成立

Lenin은 1920년에 그가 밝힌 these에 따라 1922년 中國共產黨에게 다음과 같은 指畵를 내렸다. ① 「植民地의 共產主義者들이 그들 自身の 階級의 利害를 방어한다는 理由에서 帝國主義의 압제에 대한 (bourgeois 民族主義者들의) 鬪爭에 參與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最惡의 機會主義이다. ……아세아에서 現在 強調되어야 할 슬로건은 (i.e. bourgeois 民族主義와의 協助下) 의) 反帝國主義 聯合戰線이다.」

中國共產黨은 이에 充實히 따랐으나, 그 結果는 장개석의 軍事獨裁의 成立이라는 慘憺한 것이었다. 그러나 Lenin의 뒤를 이은 Stalin은 이와 같은 結果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立場을

견지해 나갔다. 그 理由로서는 첫째 日本의 領土擴張努力에 대한 방패로서 民族的으로 굳혀진 中國이 必要했었고, 둘째, 당시 國內에서 反對派들이 蔣 政權을 援助한다는 것은 國際共產主義의 目的보다 오히려 소련의 國家政策的 目的을 重視한다는 비난과 對決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Lenin의 立場을 견지한 것으로 생각된다. ② Stalin은 이를 革命에도 「숨돌리는 시간(Atempause)」이 必要하며, 소련에서 이론 成功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資本主義와 關係를 갖는 것이 必要하다는 名分을 내세웠으며, 더구나 第一次五個年計劃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西歐를 위시한 資本主義者國과 正常的인 外交關係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例. 1934. 9. 16. League of Nation에 加入) 이에 따라 소련은 「一國社會主義」라는 이름하에 産業化에 主力하게 되고, 이때의 10年 동안 植民地問題는 소련의 視野에서 멀어져 갔다. 이러한 속에서 二次大戰이 일어나게 되자 소련은 植民地를 가진 國家들과 同盟關係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Komintern까지도 포기하게 되었다. 二次大戰이 끝나고 戰勝國이 된 소련은 그 자신의 힘에 의한 擴張政策을 시도해보았으나 實效를 거둘 수 없었다.

한편, 中國은 1934年 延安政權의 成立 이후, 毛澤東의 新民主主義理論에 입각하여 national bourgeoisie와 제휴하여 日本帝國主義의 勢力을 몰아내고, 1945年 이후 中國內의 主導權 획득을 위한 투쟁이 展開되어 1949年 10月 中華人民共和國이

誕生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新民主主義理論을 人民民主主義獨裁로 바꾸게 되는데, 그 基本構想에 있어서는 大差를 發見할 수 없다. 이를 把握하기 위해 1949年 6月 30日에 나온 毛澤東의 「人民民主主義獨裁에 對해서」라는 論文을 보면 다음과 같은 主張을 하고 있다. ③ 「人民民主主義獨裁의 基礎는 勞動者階級, 農民階級 및 都市 小bourgeoise의 同盟이고, 주로 勞動者와 農民의 同盟이다. 왜냐하면, 이 두 階級은 中國人國의 80%부터 90%를 占하고 있기 때문이다. ……新民主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 이르는 데에는, 주로 이 두 階級의 同盟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基本的 性格을 밝히고, 이 人民民主主義獨裁는 가장 革命的 性格을 가진 勞動者에 의해 指導되어야만 革命的 成功이 可能하다고 指摘하고 있으며, national bourgeoisie에 대해서는, 現在의 強大한 帝國主義 勢力과 對決하고, 또 中國의 뒤떨어진 經濟的 地位의 向上을 위해서, 이들과 유대關係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national bourgeoisie는 革命的 指導者는 될 수 없고, 또 國家權力 內에서 主要한 地位를 占할 수도 없다. 이것은 national bourgeoisie의 社會經濟的 地位가 그들의 軟弱性을 決定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긴 視野를 가지지 못하고, 충분한 勇氣를 가지지 못하여, 그 위에 民衆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적지 않다.」④

이와 같은 毛澤東의 立場이, 中共의 成立과, 소련의 植民地에 대한 一時的 소극적 태도와 함께, 世界共產主義에

하나의 位置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1950年末의 兩國의 論爭의 실마리가 된 것이다.

## 2. 非植民地過程과 兩國의 立場

二次大戰이 끝나자, 소련과 中共의 예상과 달리, 몇 나라를 除外하고는(例,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 알제리아 等), 대부분이 非暴力的으로 獨立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Lenin의 有名한 命題에 따라,⑤ 이러한 植民地의 獨立은 形式上의 獨立에 不過한 것이고, 經濟的, 財政的, 軍事的 예측관계에 의해 새로운 植民地主義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兩國은 guerilla戰의 形態로 「人民解放戰線」을 구축해야 한다는 立場을 兩國은 取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 新生國의 政權은 共產主義를 방어하기 始作하게 되고, 과거의 植民地 母國과 손을 잡게 됨에 따라, 對共產圈의 形成이라는 結果를 招來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兩國의 舊植民地에 대한 政策의 修正이 不可避하게 되었으며, 그 具體的인 例가, 1954年の 中共이 印度와 맺은 Panch-Schilla條約⑥과, 1956年の, 소련이 내놓은 zone of peace 理論⑦이었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圖式化된 理論에서 생겨난 現實 앞에서, 世界革命戰略의 一步後退를 행해야만 했던 것이다.

## 3. 中·蘇 論爭

소련은, 平和共存論이 提唱된 20次共產黨大會 이후, national

bourgeoisie에 對한 評價에 있어서도 보다 긍정적인 方向을 취하게 되었다. 당시 아세아에 대해 專門家로 알려진 Zukov의 글을 통해서 보면,⑧ 「農民들이 數的으로는 壓倒的이지만, 그들은 分散되어 있고, 內的으로 結合力이 不足하므로, 擘 짜인 힘이 形成될 수 없다. 따라서 勞動階級이 아직 一般的으로 認定된 指導者의 位置를 占하지 못한 아세아나 아프리카에서는 national bourgeoisie들이 半植民地主義 運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植民地의 解體도 資本主義體制를 弱화시키는 것이므로, 共產主義者와 national bourgeoisie와의 相互協助를 強調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련은 national bourgeoisie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評價와 함께, 平和共存理論에 입각해서 軍事的 鬪爭에 의한 勝利보다, 政治, 經濟的 鬪爭에 눈을 돌림으로써, 新生後進國에 대한 立場에도 修正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의 植民地였던 國家에서, 共產主義者들을 外交的, 經濟的 側面後援속에 活動할 수 있게 하며, 그 一次的 目標을 bourgeois의 붕괴 이전에, 강한 共產主義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고, 帝國主義 블럭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보다 소련의 外交政策的인 次元에서 問題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具體的인 實例가, 國內共產主義를 억압하는 Nasser에 對한 援助, Algeria에 있어서 NLF에 對한 소극적인 態度(불란서와의 關係 때문에)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소련의 태도에, 1954년경부터 national bourgeois에 대해 宥和의 態度를 보였으나 거의 實效를 못 거둔 中共은 反撥하기 始作했다. 1959년에 들어서서는, 1956년 이래 계속되는 中·蘇論爭의 三段階로서 「人民解放戰線」에 대한 異見이 露骨化되었다. 소련은 反帝國, 反封建鬭爭은 現存政權의 體制內에서 可能하며, 이들 國家의 革命的 딜레마의 마지막 結果는 地方 共產主義者들의 鬭爭뿐만 아니라, 東西間의 平和的 競爭의 過程 속에서 決定된다고 主張하는 데 대해서, 中共은 다음과 같은 主張을 하고 있다. ⑨ 「어느 정도까지는 帝國主義와 封建勢力에 대한 鬭爭에서 bourgeoisie와 협조할 수 있다. 그러나 브르조아는 결국 브르조아인 것이다. 그들이 일단 政權을 잡으면, 그들은 確固한 革命的 路線을 따르지 않고, 흔들리고 協商을 시도한다. 따라서 社會主義革命은 물론 民族的 民主主義革命조차도 不可能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얻은 獨立마저 不安定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兩國은 後進國의 革命에 대해, 그것이 世界共產主義를 위해 必要하다는 것에는 一致하고 있으나, 革命的 速度問題, national bourgeoisie의 役割 等に 대해서는 전혀 相異한 점이 存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兩國의 立場의 差異는 1960年 81個國共產黨大會에서 소련은 「民族的 民主主義前線」⑩을 主張하기에 이르고, 反面에 中共은 60年 黨大會 Moscow 宣言에 서명은 했지만 新民主主義,

人民民主主義에서 主張하던 立場을 고수하고, 첫째, 먼저 낡은 國家機構가 破壞되어야 하기 때문에, bourgeois 政府를 거처 「勞働者農民政府」에 이른다는 것은 不可能하며, 둘째, 西歐 帝國主義勢力과 실제 鬪爭하지 않는 中立國에 대한 援助는 할 수 없다는 立場에 서 있었다.

1960年代에는 위와 같은 兩國의 立場이 계속 維持, 展開되어 나왔으나, 資料 수집의 不足, 限界 때문에, 이에 대한 詳述은 다음 研究課題로 삼기로 하고, 다만, 1969年 6월에 열렸던 世界共產黨大會에서 採擇된 「現段階에 있어서 反帝鬪爭의 諸課題 및 全反帝勢力의 行動統一」<sup>⑩</sup>이라는 基本文書에서 소련의 立場이나, 1965年 9月 3日の 人民日報에 실린 「人民戰爭의 勝利萬歲」(林彪), <sup>⑪</sup> 1966年 8月,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 第11回 總회 communique<sup>⑫</sup>에서 나타나고 있는 中共의 立場은, 대체로 政策의 새로운 變化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 V. 相異한 立場의 몇 가지 原因들

中共과 소련의 舊植民地였던 新生國에 대한 基本政策에 있어서, 反帝國主義鬪爭에 있어서 聯合은 兩者가 모두 必要하다고 認定하나, 그 遂行 過程에 있어서 national bourgeoisie의 役割에 대한 立場은 一致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검토에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national bourgeoisie에 대한 相異한 立場이 생기게 된 原因이 무엇인가를, 本 小考에서는 하나의 試論으로서 簡略하게 몇 가지 점만을 指摘해 보고자 한다.

첫째, 「10月 革命은 首都의 武裝된 러시아 勞動階級의 蜂起로서 始作되었다. 그 發展過程은 먼저 都市에서부터 占領해서 農村으로 擴大되어갔다. 그런, 1927年 中國共產黨의 獨立的인 指導하에 始作된 中國革命戰爭은 먼저 農民革命을 基盤으로 農村地域의 일부에서 成功하여, 그것이 점차 擴大되어 결국 都市에서까지 成功할 수 있었다.」①

위와 같이 1960年 「紅旗」에서 比較하고 있는 것과 같이 中國과 소련에 있어서 革命에 대한 體驗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소련에 있어서는 그것이 짧은 期間 동안에 guerilla戰 같은 것에 의하지 않고 都市의 勞動者들로부터 始作되었기 때문에, 그 過程에서 national bourgeoisie와 심각한 關係같은 것은 存在하지 않았다. 반면에, 中國에서는 20여년에 걸쳐 農民勢力의 도움을 얻어 guerilla戰을 통해 農村에서부터 出發하여 都市를 포위하는 方法으로 革命을 遂行했기 때문에 national bourgeoisie의 조종은 重要的인 일이었다, 특히 1927年 一次國共合作의 失敗가 中國의 獨自的인 모델을 設定하는 데 깊은 影響을 주었던 것이다.② 따라서 中國은 그들의 체험 속에서 反帝, 反封建의 鬪爭에 있어서 共產黨 指導下에 national bourgeoisie와의 提携의 立場을 취했고, 소련은 그들의

革命過程에 따른 bourgeois 革命→proletariat 革命→社會主義의 model에 따라 後進國에 있어서도 national bourgeois에 의한 bourgeois 혁명을 一段階의 過程으로 提示했던 것이다.

둘째, 兩國의 立場의 變化나 決定은, Zagoria의 表現을 빌린다면,③ 革命的 利害(revolutionary interest)에 많은 影響을 받는다. 「소련과 中共의 展望」으로는, 世界는 革命的 激動 속에 있고, 결국 共產化될 運命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 過程을 追求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 것, 地方主義, 타이밍의 相異點들이 생겨난다.④ 즉, 그들의 革命的 利害關係가 相異點을 決定짓는 경우가 많은데, 소련은 先進 西歐帝國들이 우선적 目標이고, 그들의 弱化시키기 위해서는 後進地域에 대한 立場에 보다 큰 유연성이 필요하게 된다. 반면에, 中共은 西歐는 소련에 맡기고, 주로 그들의 革命을 이끌어 나가기 원하는 後進地域에서 革命的 路線이 불붙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兩國의 革命的 利害關係는 Stalin이 죽기까지는 크게 충돌하지 않았으나, Khrushchev時代 이후, 後進地域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게 되고, 이것이 中共과의 사이에 많은 말썽을 빚어내게 했던 것이다.

셋째, 中共과 소련의 經濟的 水準의 差異, 軍事力의 優劣이 또 하나의 重要한 原因을 이룬다.⑤ 中共은 그동안 많은 努力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 「have not」의 國家들의 영역에 속하고, 한편, 소련은 50年 동안 비약적인 經濟發展을 통해

産業國家로서 成長하여, 「have」 國家群에 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련은 점차 外交, 經濟的인 側面에서 後進地域의 反帝運動을 支援하려 하고, 中共은 보다 積極的 態度를 취해, 經濟的 弱點을 補充하려는 意圖도 內在해 있는 것이다. 軍事的인 面에서도 소련은 美國과 優劣을 다투는 最大強國으로서 登場하고 있고, 中共은 아직까지는 第二의 잠재강국으로서 存在하고 있기 때문에, 소련은 보다 신중한 態度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中共은 持久戰論, 反唯武器論의 主張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은 世界大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軍事的인 側面에서의 直接的인 世界共產化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으나, 中共은 아직까지는 革命에 의한 資本主義體制의 國家形態의 變革을 통한 世界共產主義化를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兩國의 立場의 相異가 생기는 몇 가지 原因을 試論的으로 서술했으나, 보다 根本的으로 兩國의 世界戰爭에 대한 깊은 研究가 行해져야, 보다 次元 높게 이 問題를 解明할 수 있으나, 現在의 筆者의 水準으로는 이 程度에서 일단 머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 VI. 結

後進國의 national bourgeoisie에 대한 中·蘇의 立場을 첫 章에서 提示한 方法에 따라 分析을 한 結果로 얻어진 것이 첫째, marxism의 革命理論에 있어서 national bourgeoisie가 問題된

것은, 러시아革命의 成功 이후 기대되던 西歐의 연속적 革命이 좌절된 후 아세아가 視野에 들어온 이후부터라는 것, 둘째, Lenin과 毛澤東의 근본적 差異點은 그들 나름의 後進國에 있어서의 革命model의 相異에 따라서 누가 初期革命過程에서 主導權을 잡아야 하는가에 있었다는 것. 셋째, Lenin과 毛澤東의 立場이 그 이후의 狀況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兩國에 있어서 밀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 넷째, 이와 같은 立場의 相異는 歷史的 體驗, 國力, 革命의 利害 등에서 原因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解答이 우리에게 어떠한 問題를 던져주고 있는가 하는 것은, 筆者 자신이 보다 具體的으로 中·蘇와 韓國과의 關係에 대한 研究를 한 이후에 취급하기로 하고, 本 小考에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다.〉 (삭제)

이상의 考察을 통해 中·蘇 양국의 後進國 national bourgeoisie에 대한 立場을 歷史的으로 把握하였고, 이것이 오늘날의 중소분쟁의 重要한 issue 중의 하나를 이루어 왔던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중소분쟁이 국제 다원화의 가장 큰 요인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 註

### II. 革命과 National Bourgeoisie

① K. Marx, The Communist Manifesto, (Man & The State, The Political Philosophers에서 引用, p.532)

② V. I.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Chap. I,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65)

이 冊에서 Lenin은 Marx보다 더 proletariat 獨裁의 政治體制의 暴力的 性格을 強調한다.

③ H. Arendt, On Revolutio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5)

이 冊의 Chap. I. The meaning of revolution은 本 小考와 直接的 關係는 없으나 近代革命의 性格을 理解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었다. Marx의 革命論의 義味는 p56-p61.

④ Marx와 Engels는 革命에 대한 信念을 포기한 일은 없지만, 末期에 가서는 Europe 大陸에 국한해서 暴力革命論을 主張했다. Marx-Engels, Aus geuählte Briefe, Berlin, 1953. S. 307. [梁好民, Marx·Lenin主義(理論批判篇)에서 再引用]

⑤ K. Marx, op. cit. Chap II.

⑥ V. I. Lenin, op. cit. Chap I, V

⑦ E. Boettcher, Politische Begründung und Methoden Kommunistischer Entwicklungspolitik, in: Entwicklungstheorie und Endwicklungspolitik, hrsg, von Eric Boettchen, Tübingen, 1964,

### Ⅲ. Lenin과 毛澤東의 立場

- ① Ch'en Tu-hsiu, quoted in Schwatz, Communism, p.48 [Klaus Mehnert, Peking and Moscow, (N.Y.A Mentor Book, 1964) p157-158에서 再引用]
- ② K. Mehnert, Peking and Moscow, (N.Y.A Mentor Book, 1964)에서 Chap.VI With or Without the Bourgeoisie?를 참조할 것.
- ③ E. Boettcher, op. cit. p126에서 再引用
- ④ E. Boettcher, op. cit. p129에 있는 註27 참조  
이 論爭에 관해서는 Allen. S. Whiting, Soviet Policies in China 1917-1924, (New York, 1954) 및 E. H. Carr, The Bolshevik Revolution, 1917-23, Bd. 3, (London, 1953) 참조
- ⑤ Mao Tse-Tung, Selected Works (London and New York), Vol. I, pp13-20. [K. Mehnert, Peking and Moscow, p174에서 再引用]  
이 報告書는 毛澤東이 1926年 그의 故鄉인 湖南省에 파견돼서 32日間 체류한 후, 黨에 보낸 것으로 農民들의 革命過程에 있어서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 ⑥ 毛澤東, 矛盾論 (東京, 平凡社의 世界教養全集15, 1968) p215.
- ⑦ 毛澤東, 上揭書 p218
- ⑧ 毛澤東, 新民主主義論 (1940. 1. 19)

여기에서는 Robert Payne의 Mao Tse-Yung의 Eight, Five Books라는 章에 발췌 요약된 것에서 再引用 pp185-190

⑨ 毛澤東, The Chinese Revolution and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1940) [Robert Payne, op.cit. p191-196에서 再引用]

#### IV. 兩國의 立場의 變遷過程

① Degras, Communist International, Vol, pp. 389 f.

② E. Boettchen, op. cit. p 129

③ 毛澤東, 人民民主主義独裁について- 中国共産党二十八周年を記念して- 本 小考에서는 堀田善衛의 編集·解説로 된 現代人の 思想시리즈 17인 民族の 獨立(東京, 平凡社, 1968) 中에서 引甲 p324.

④ 毛澤東, 上掲書 p.325

⑤ E. Boettcher, op. cit. p126

이 命題는 오늘날까지도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 例로서, 具島兼三郎, 現代の植民地主義(東京, 岩波新書, 1969, 12刷)나 최근에 岩波新書로 번역이 나온 Harry Magoloff의 The Age of Imperialism (N.Y. Monthly Review Press, 1969)等을 들 수 있다.

⑥ 1954年 4月에 中共과 印度 사이에 맺어진 協定으로서 그 內容은 첫째, 領土保存과 主權의 相互존중, 둘째, 不可侵, 셋째, 相互의 國內問題에 대한 不干涉, 넷째, 平等과 相互利益의 基盤 위에 國際關係의 改善, 다섯째, 平和共存과 經濟協力이다. (W. W.

Kulski, Peaceful Co-Existence 參考)

⑦ 1956年 20次 黨大會에서 提唱된 것으로 Europe과 아세아의 社會主義國家와 非社會主義 平和愛護國家(주로 植民地에서 獨立한 新生國)을 포함해서 平和의 地域이라 설정하고, 이들이 함께 追求해야 한다는 理論이다. (W. W. Kulski의 Peaceful Co-Existence 참조)

⑧ Yu. Zukhov, “Znamenatel’nyi Faktor Nashegs Vremeni” (Prava, 1960. 8. 26) [D. S. Zagoria, The Sino-Soviet Conflict 1956-1961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2) pp254-255에서 再引用]

⑨ Whang Chia-hsiang, in Ten Glorious Years, 1954-1959 (Peking, Foreign Language Press, 1960) p. 4, D. S. Zagoria의 上揭書 pp276-279에서 再引用

⑩ 1960. 12月 Moscow에서 열린 81個國共產黨大會에서 採擇된 것으로, 그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民族的 民主主義國家의 政治的 基盤은 완전한 民族的 獨立을 위하여, 포괄적인 民主主義를 위하여 反帝, 半封建的인 民主主義革命의 完遂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進步的인 愛國主義세력의 bloc이다. (...) 共產主義者의 目的은 民族의 最高의 利害關係와 一致한다. (...)」 (E. Boettchen의 上揭書에서)

⑪ 朝日新聞, 1969. 6. 19.

⑫ 林彪, “人民戰爭의 勝利萬歲” (東京, 共同通信社의 世界年鑑, 1967) p99-101

林彪는 1965年 9月 3日 人民日報에 이 글을 發表했는데, 中共成立까지의 毛澤東의 人民戰爭을 격찬하고, 나아가서 그의 오늘날의 世界革命은 世界的 都市를 포위하는 方式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므로, Asia, Africa, Latin America에서의 人民의 革命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⑬ 이 communique의 要旨는 「첫째, 米帝國主義勢力은 보기에는 強하나 實際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둘째, 소련공산당의 新指導部는 Khurshchev 없는 Khurshchev 修正主義를 推進, 米國을 필두로 하는 帝國主義, 各國反動派와 聯合해서 反共, 反人民, 反中共의 新神聖同盟을 結成하고 있다. 셋째, 따라서 帝國主義에 反對하기 위해서는 現代修正主義에도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Marx-Lenin主義와 現代修正主義와의 투쟁에는, 결코 中間의 길은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V. 相異한 立場의 몇 가지 原因들

① Red Flag, No. 20-21, 1960. From text released by NCNA, November 2, 1960. “A Basic Summing up of Experience Gained in the Victory of the Chinese People’s Revolution” G. F. Hudson, R Lowenthal & R. MacFarguhan가 編集, 分析한 The Sino-Soviet Dispute (The China Quarterly, 1961) pp. 162-163에서 再引用

② Donald. S. Zagoria, op. cit. p16

③ Donald. S. Zagoria, op. cit. p19

Zagoria는 革命의 利害(revolutionary interest)는 國家利益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世界革命의 次元을 넘어서고 있다고 說明하고 있다.

④ Donald. S. Zagoria, op. cit. p19

⑤ Donald. S. Zagoria, op. cit. pp18-19

## 參考文獻

- K. Marx, *The Communist Manifesto*, (Man & the State, The Political Philosophers에 있는 版)
- V. I.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65)
- 毛澤東, 矛盾論, (東京, 平凡社, 1968)
- “人民民主主義獨裁について”
- “中國共產黨全國宣傳工作會議における講話”(東京, 平凡社, 1968)
- 林彪, “人民戰爭の 勝利萬歲”(東京, 世界年鑑, 1967)
- G. F. Hudson, R. Lowenthal & R. MacFarguhan, *The Sino-Soviet Dispute* (London, The China Quarterly, 1961)
- 世界年鑑, 1967, (東京, 共同通信社)
- 朝日新聞 1969.
- 人權宣言集 (東京, 岩波文庫, 1968, 14刷)
- H. Arendt, *On Revolution* (N. Y. The Viking Press, 1965)
- K. Mehment, *Peking and Moscow* (N. Y. A Mentor Book, 1964)
- A. Fremantle, *Mao Tse-tung* (N. Y. A Mentor Book)
- R. Payne, *Mao Tse-Tung* (N. Y. A Pyramid Book, 1966)
- D. S. Zagoria, *The Sino-Soviet Conflict, 1956-1961* (Princeton, Princeton Univ. 1962)

金相浹, 毛澤東思想 (서울, 知文閣,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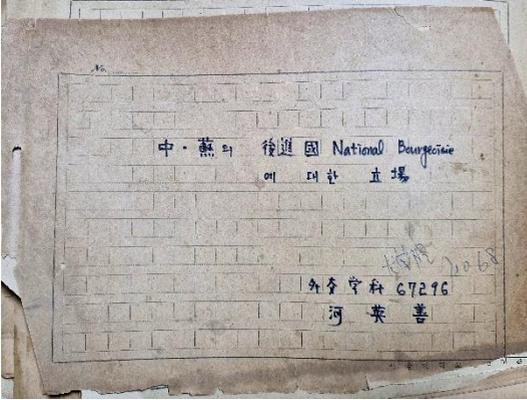
具島兼三郎, 現代の植民地主義(東京, 岩波新書, 1969, 12刷)

W. W. Kulski, Peaceful Co-Exis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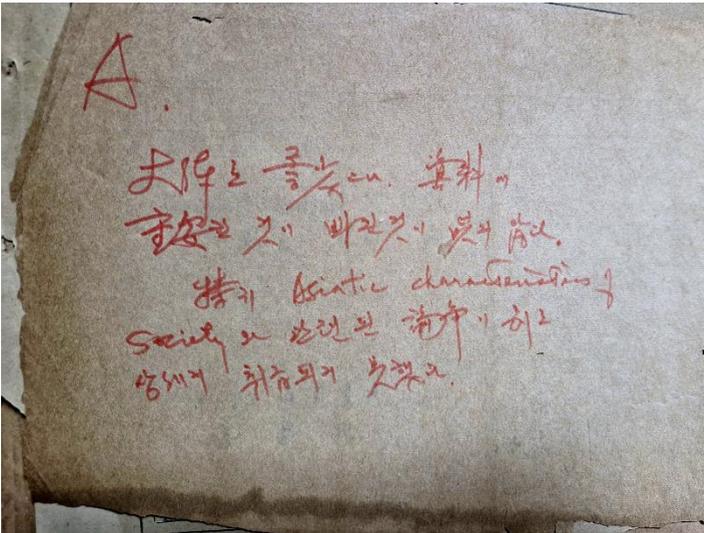
永井陽之助, 平和の 代償(東京, 中央公論社, 1967)

E. Wilson, To the Finland Station, (N. Y. Doubleclay & Company, 1953)

E. Boettchen, Politisch Begründung und Methoden kommunistischen Entwicklungspolitik, in: Entwicklungstheorie und Entwicklungspolitik, hrsg. von Eric Boettchen, Tübingen, 1964.



▲ 하영선 교수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2 학년 재학 당시 작성한 “中·蘇의 後進國 National Bourgeoisie 에 대한 立場”



▲ 표지 뒤에 적힌 노재봉 교수의 피드백: “A. 대체로 좋았으나 자료에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 없지 않다. 특히 Asiatic Characteristics of Society 와 관련된 논쟁이 별로 상세히 취급되지 못했다.”라고 적혀 있다.